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임 종 명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머리말: 1946년 콜레라 사태와 중심부/주변부/변경성

I. 지연된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

II. 발병 직후 콜레라의 강변 지역 확산

III. 홍수 이후 콜레라의 천변 지역 만연

맺음말: 콜레라 사태의 사회·역사적 사건성(性)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68518).

● 투고일: 2020. 11. 25. ● 심사일: 2020. 11. 25. ● 게재확정일: 2020. 12. 10.

● <https://doi.org/10.31218/TRKH.2020.12.140.453>

www.kci.go.kr

요약

상대적으로 뒤늦게 5월 말 서울에서 발병한 콜레라는 6월에 들어서자마자 서울 외곽 지역, 그중에서도 한강에 연해 있거나 그것에 가까운 지역에서 적지 않은 환자를 낳았다. 6월 중·하순의 대홍수는 서울 지역의 발병 상황을 일층 악화시켜, 7월 초 전후부터 콜레라는 도심지 주변 지역, 그중에서도 청계천에 접하거나 그것에 가까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병하였다. 하지만, 서울 지역 콜레라도 가을 들어 10월에는 종식되게 되었다.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사는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사회 기반 시설과 의료 기관, 풍부한 인적·물적 방역자원과 함께 서울 중심의 전국적 방역 대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병 규모와 낮은 치명률이라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와 같은 특성의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사는 세균학적인 자연사적 성격과 함께 사회·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콜레라가 수인성 전염병답게 한강 강변 지역이나 청계천, 육천 등 천변 지역에서 만연하였다는 점에서, 콜레라 만연은 세균학적인, 자연사의 것이었다. 하지만, 상수도과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시 외곽의 변경 지대 등에서 지역 감염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콜레라 발생과 만연은 직접적으로는 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기도 했다. 나아가 마포 지역의 사례에서처럼, 콜레라 발병은 종전/해방 직후 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의 국제정치와 일국 정치의 상황을 표현하였다.

동시에, 한국의 중심부인 서울의 콜레라 발병세와 발병상은 일국적, 지역적 수준에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 그리고 변경의 문제 또한 표현하고 있었다. 당시 ‘수부 방어’라는 관점에서 실행된 서울 중심의 방역 대책은 서울 지역의 콜레라 발병 시기를 여타 도(道) 단위 지역의 그것보다 늦추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콜레라 발병세의 상대적 약세(弱勢)를 낳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였다. 그런데, 당시 시내 주요 콜레라 병원지·발병지는 도심 기반 시설이 빈약한 도심지 외곽이나 시 외곽의 변경 지역 등 중심부의 주변부였다. 바로 이 점에서 서울 지역 콜레라는 근대 중심부/주변부 관계에 변경의 문제가 중첩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1946년 콜레라, 서울, 강변 지역, 천변 지역, 중심부/주변부/
변경

머리말: 1946년 콜레라 사태와 중심부/주변부/변경성

1946년 5월 부산에서 시작된 콜레라는 전(全)한반도적 사태였다. 1946년 5월 초 “콜레라 환자들이 탄 세 척의 배가 중국과 인도차이나로부터 부산에 도착해 그곳[부산]에서 전염병은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콜레라 전염·감염사(事)는 곧 한반도 전체를 휩쓸면서,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대유행이 “종식”되었다고 평가된 11월 30일 현재 15,615여 명의 환자, 그중 약 65%에 달하는 10,191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또 남한의 콜레라가 6월에 ‘육로와 해상을 통해 38도선 이북 지역으로 전파되고, 이에 더하여 7월의 수재(水災)가 겹쳐지면서 북조선 지역에서도 콜레라는 급속히 확산’하였다. 그 결과 ‘그 지역에서도 환자 1,235명과 사망자 576명이 있었지만, 북조선 콜레라 감염사도 10월 말에 종식되어 11월에는 여행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 이처럼 남한과 북조선 지역에서 발병세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1946년 콜레라 감염사는 전한반도적 사태로서 10월 30일 현재 16,850명 환자와 그중 10,767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낳은 콜레라 사태가 5월 초 중국발 송한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당대 국제정치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

1) US Armed Forces in Korea(USAFIK), X X 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1948, “Repatriation of Japanese Civilians and Other Foreign Nationals,” pp. 43-44, *History of US Armed Forces in Korea PART I* (북각판), 456쪽; General Headquarters(GHQ), US Armed Forces, Pacific(USAFPAC), *Summation of U.S.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미군정활동보고서』, 원주문화사 영인본, [이하 GHQ, USAFPAC, *Summation*] No 14 (1946.11.) p. 74; 『水産經濟新聞』 1946년 11월 22일자 「虎疫患者累計一萬五千」; 여인석, 2018(2019), 「미군정기와 정부수립기: 1945~1949」, 대한감염학회, 『한국전염병사』Ⅱ, 군자출판사, 13쪽; 김진혁, 2014, 「북한의 위생 방역제도 구축과 인민의식의 형성의 형성(1946~1950)」, 『한국사연구』167, 258-59, 263쪽 각주 55번. 덧붙이면 11월에 20명의 환자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남한 지역에서는 신규 환자가 발생치 않으면서, 미군은 남한에서 콜레라가 “종식”되었다고 평가·표현하였다.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즉, 송환(repatriation) 정책이 아시아-태평양 전쟁 종전 직후 일본 제국의 해체와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표에 따라 미국에 의해 추진된 것이라면, 1946년 콜레라 발병 사태는 전후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일(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발 한국인 송환선에서 발병한 콜레라가 미국의 한국인 송환 작업은 물론이고 일본인 송환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의 전후 동아시아 재편 정책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콜레라 사태는 당대 동아시아 국제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친 하나의 국제적 사건이었다.²⁾

또한, 1946년 콜레라 사태는 미군의 남한 군사 통치와 관련해서 남한 내 정치적 함의를 지닌 것이기도 했다. 종전/해방 직후 한국 등 구(舊)식민지에서 고조된 민족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미국 점령군의 남한 통치 상황에서 미군정은 생명 유지와 관련된 보건·위생 사업을 매개·계기로 하여 한국인들에게 ‘이민족’의 군사 점령·통치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한국인들의 군정 수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³⁾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 중격어도 반(半) 이상이 죽을 정도로 높은 치명율을 보여주었던 콜레라가 남한에서 만연하였다.

콜레라의 만연 속에서,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쌀 소동’이 발생했다. 당시 미군정은 콜레라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발병 지역 봉쇄와 교통통제를 실행하면서, 춘궁기(春窮期)의 식량 문제를 악화시켰다. 이에 따라, 예컨대, 대구에서는 7월 1일 “쌀을다오”, “交通을解禁하라”고 외치며 “數千市民”이 “[대구]府廳에殺到”하였다. 7월 1일 대구의 쌀 소동은 정확하게 3개월 후인 10월 1일 장소도 똑 같은 대구부청 앞에서 ‘10월 항쟁’으로 재현되어 ‘역사’를 만들었다.⁴⁾ 이것은 1946년 전국적으로 진행된 콜레라

2) 임종명, 2020, 「1946년 경기 지역의 콜레라 사태와 종전/해방 직후 국제·일국·지역 정치」, 『동방학지』193.

3) 위와 같음.

가 당대 사회에 끼친 영향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대구·부산 등지의 ‘쌀 소동’은 미군의 남한 점령을 정당화하는 헤게모니 이념인 인본·인도주의(humanism)를 부인하는, 그리하여 미군의 군사 지배·통치에 정당성 위기를 초래하였다.⁵⁾

1946년 콜레라 사태가 내장한 일국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문제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기존 연구는 해방 직후 전염병 발병사 연구의 일부로 1946년 남한의 콜레라 사태를 검토하였다.⁶⁾ 콜레라 사태의 부분화는 미군정 시기 전염병 관련 연구들에서도 확인된다. 그 연구들은 남한의 경우 미군정의 보건의료정책을 논하면서 “46년 콜레라 유행”을 언급하거나, 북조선의 경우 북조선 당국의 위생방역 제도 구축과 주체 생산 작업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1946년 남한의 콜레라 사태를 검토하였다.⁷⁾

1946년 콜레라 사태의 부분화는 그것과 관련된 당대사(事), 예컨대 ‘대구·경북 지역의 1946년 10월 항쟁’ 연구에서도 목격된다. 기존 연구는 ‘항쟁’의 전개 과정을 실제적으로 재구성하면서 그것의 당대 정치·사회적 의미를 논구하여 그것을 역사적으로 의미화하였다. 그렇지만, 관련 연구

-
- 4) 『大邱時報』 1946년 07월 02일자 「쌀을다오交通을解禁하라: 數千市民府廳에殺到」; 김상숙, 2016, 『10월항쟁: 1946년 10월 대구 봉인된 시간 속으로』, 돌베개, 특히 70쪽. 콜레라 발병기 대구의 상황 전개는 1946년의 10월 항쟁이 그해 5월부터 시작된 콜레라 사태의 와중(渦中)에서 발생·진행된 ‘역사적 사건’(historical event)-스웰(W. Swell Jr.)의 ‘우연적(contingent)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대중의 비(非)이성적 심리 상태가 고조되는 속에서 시간적으로 진행되고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등의 특징을 가졌다’고 하는-이웃음을 시사한다. Swell Jr., William H., 1996, “Historical Event as Transformations of Structure: Inventing Revolution at Bastille,” *Theory and Society* 25(6).
 - 5) 임중명, 앞 논문.
 - 6) 여인석, 앞 논문, 특히 11~14쪽; Kim, Yang Soo, 2019, “Cholera Outbreaks in Korea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Clinical and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Infection & Chemotherapy* 51(4), p. 429.
 - 7) 신좌섭, 2000, 「군정기의 보건의료정책」, 『醫史學』9(2), 특히 229쪽; 김진혁, 앞 논문, 특히 258~59쪽.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은 10월 항쟁 연구에서 콜레라 문제를 치지도외(置之度外) 하거나, 항쟁의 배경 정도로 위치시키면서 항쟁의 전개 과정 설명에서 콜레라 만연 상태가 영향을 끼친 지역민의 의식이나 행동 양식을 논의(論外)로 하였다.⁸⁾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가장’ 만연했던, 그것도 그것이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해서 진행된 10월 항쟁에 끼친 콜레라 사태의 영향·효과가 검토되지 않았다.

그런데 1946년 콜레라 사태는 10월 항쟁의 시작과 전개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콜레라 방역 조치였던 교통 통제로 인해 일층 심각해진 식량 부족 상태는 7월 1일 대구 지역의 ‘쌀 소동’을 낳았다. 그날 아침 지역 주민이 대구 부청(府廳)으로 쇄도하여 쌀을 요구하던 모습은 ‘10월 항쟁’의 전조(前兆)라 할 수 있을 만큼 10월 1일 오전 대구 풍경과 유사, 아니 거의 똑같았다. 더군다나, 콜레라가 인간의 심리·의식과 행동 양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전염병 유행기에 ‘10월 항쟁’은 진행되었다.⁹⁾ 그렇지만, 기존의 10월 항쟁 연구에서는 앞에서처럼 콜레라의 영향·효과가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에 유의하여, 본 논문은 1946년 콜레라 사태의 전체적·전면적 재구성이라는 목적하에서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확산 과정과 그 양상 및 특

8) 정해구, 1988, 『10월인민항쟁 연구』, 열음사; 김상숙, 앞의 책, 55~59, 70쪽.
 9) 「쌀달다오交通을解禁하라: 數千市民府廳에殺到」; 『自由新聞』 1946년 10월 04일자 「쌀달라는群衆 軍政廳廣場에示威行列」. 전염병 유행 시기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 양식에 관해서는 윌리엄 맥닐 지음, 허정 옮김 1992(1995),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Plagues and Peoples), 한울, 196, 300쪽 참고. 전염병 유행기 인간형과 관련하여, 예컨대, 다음 자료에서 보이는 10월 항쟁의 모습은 시사적이다. 『東亞日報』 1946년 10월 06일자 「燒殺直前に警官救出 蜂起된嶺南一帶의騷動經緯」; 『漢城日報』 1946년 10월 12일자 「慘! 人間獄의繪圖 右翼系五十名을燒殺」; 『東亞日報』 1946년 10월 15일자 「戰慄! 郡守其他를燒殺 아- 戰慄할 永川署의 襲擊事件」; 『朝鮮日報』 1946년 11월 03일자 김지목(金之牧) 「嶺南騷擾現地踏查記」. 덧붙이면, 1946년 콜레라 사태가 10월 항쟁에 끼친 영향은 필자의 「1946년 대구·경북 지역의 콜레라 만연과 그것의 사회·정치적 영향」(가제)에서 검토된다.

성을 검토한다. 이에 있어서, 특히 서울 지역의 콜레라 발병 시기와 구(區)·정(町)·동(洞) 단위 지역으로의 콜레라 확산 양상과 여기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특징, 그리고 서울 지역 전체의 발병세에 보이는 특성 등의 이해에 주의가 기울여진다. 이는 1946년 서울 지역의 콜레라 발병·확산 과정이 세균학적이거나 미생학물적인 자연적 사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사건이기도 했음을 보여줄 것이다.

콜레라 사태의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 본 논문은 콜레라 사태의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에 유의한다. 일찍이 월러스타인(I. Wallerstein)과 프랑크(A. Frank)는 자신의 작업을 통해 중심부/주변부론과 세계체제론을 구성하고 그것을 통해 근대 세계와 역사를 바라보는 견지(見地)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코헨(P. Cohen)이나 모리스-스즈키(T. Morris-Suzuki) 등은 세계체제론과 중심부/주변부론이 가진 문제점, 즉 “서양중심주의,” 또 ‘오지(輿地; hinterland)의 소(小)사회에 대한 시야 상실’을 지적·비판하였다. 특히 모리스-스즈키는 대안 모색의 노력으로 ‘비중심, 변경’이라는 시좌(視座)를 제기하였다. 필자는 그들의 비판적 문제 제기에 동의하면서도, 중심부/주변부론이 국가나 국제적 체제와 같이 “대규모 집권화된 사회”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는 유용한 틀이라고 판단한다.¹⁰⁾

근대 산업 자본주의의 발달과 국민 국가의 발전, 그리고 세계 경제 체제의 발달 속에서 지구적·권역적(regional) 세계와 국가, 또 지역(locality)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로 상호 위계적으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주변부의 중심부가 중심부와와의 위계적 관계에서 하위에 편성되지만 자신의 주변부에 대해서는 상위에 편성된다는, 달리 표현하면, 특정한 하나의 장소(place)에 중심부성과 주변부성이 중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는 ‘중심부-주변부’로만이 아

10) 임종명, 2017, 「종전/해방 직후(1945.8~1950.5) 남한 담론 공간과 변경의 미학적 재현」, 『역사연구』33, 15~16쪽.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나라 ‘중심부/주변부’로도 표현될 수 있다) ‘중심부와 주변부의 중첩적 위계적 편성도’에서 근대 시기 서울 지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주변부이지만 한국의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중심부이고, 또 서울 지역 내부도 중심부와 주변부로 편성되어 있다.¹¹⁾ 즉, 근대 식민지 시기 “경성의 사회공간구조”는, 도시사회사적 연구에 따르면, ‘식민지 도시 공간의 특징적 현상’인 “민족별 거주공간의 분리”와 함께 ‘식민주의 권력 관계가 반영’된 ‘계층별 지역 구성’에 의한 “도시 공간의 ‘중심-주변의 이중구조’의 형성”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¹²⁾

중심부/주변부의 위계적 중첩성은 공중위생·보건 시설의 측면에서도 표현된다. 예컨대 식민지 시기, 경성은 “위생적 근대성”의 측면에서 “[일본] 제국의 건강한 도시들과 비교”한다면 “병든 도시”였다.¹³⁾ 하지만 경성은 “제국의 전시장이었던 [식민지] 수도”로서 “지방”에 비해 더 ‘근대적으로 위생화’되어 있었다.¹⁴⁾ 동시에, 경성 내부의 중심/주변을 구성하는 “일본인 중심의 남촌과 조선인의 북촌”에 있어, 보건·위생 상황은 천양지차(天壤之差)였다.¹⁵⁾ 즉, “공공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 따라 “민족에 따른 위생시설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조선인 지역은 ‘변소시설이나 오물·쓰레기 수거 서비스, 상·하수도 시설’ 등 공중 보건·위생 시설에 있어 “비위생적”인 데 반해 “일본인 거주지”는 “더 ‘위생적’이었다.¹⁶⁾ 이러한 속

-
- 11) 임종명, 2011, 「해방 공간의 소설과 ‘서울/비(非)서울’의 표상 체제」, 임종명 외, 『역사 속의 중앙과 지방』, 엔터, 특히 224~237쪽. 중심부와 주변부의 위계성과 중첩성은 종전/해방 직후 한국의 담론 공간에서도 재현·표상되고 있었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위 논문 참고.
 - 12) 김영근, 2003, 「일제하 경성 지역의 사회·공간구조의 변화와 도시경험: 중심-주변의 지역분화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20, 특히 139, 141, 151, 166쪽.
 - 13) 토드 A. 헨리 지음, 김백영·정준영·이향아·이연경 옮김, 2020, 『서울, 권력 도시: 일본 식민 지배와 공공 공간의 생활 정치』, 산치림, 277쪽.
 - 14) 위와 같음, 293쪽.
 - 15) 김영근, 앞 논문, 141, 170쪽.
 - 16) 토드 A. 헨리, 앞의 책, 267, 269, 272~273, 275쪽.

에서, “중심부-주변부 간의 극심한 불균형한 현상이 경성부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보건·위생 시설의 부내(府內) 불균형 현상이 1930년대 중반 이후 “극단적인 사회문제로 대두”할 정도가 되었다.¹⁷⁾ 이처럼 식민주의 권력 관계가 반영되어 경성 내부의 중심부와 주변부 지역의 위생 상황은 차별적이라 할 정도로 불균형 상태에 있었다. 이에 유의하여 본 논문은 근대 식민지기에 형성된 ‘중심부/주변부성’에 유의하여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상을 추적한다.

동시에 본 논문은 ‘변경성’에도 유의하고자 한다. 국경선으로 구획된 영토 국가의 성격을 가진 근대 국민 국가와 그들 국가 간(間)의 체제에서 “국경선에 연결(連接)한 지대인 변경”은 “국가 수호라는 점에서는 닫힌 공간이지만 타국과의 교통이라는 점에서는 열린 공간”이라는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국가와 그 엘리트들”은 변경을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위험스러운 문제적 공간’으로 상상”하고, 또 그와 같이 재현·표상해 그것을 ‘통제’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변경의 문제성은 역설적으로 변경 연구의 잠재력을 낳는다. 즉 특정 지역의 변경화와 변경 지역에 관한 연구는 국경선으로 영토화된 공간에 기반한 근대 국가와 그들 국가 간 체제의 형성과 유지·작동의 동학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¹⁸⁾ 이에 유의하여, 본 논문은 서울의 내연(內延)과 외포(外包)를 경계 지운다는 의미에서의 변경 지대로서 식민지 시기 1936년 ‘부역(府域) 확대’ 조치에 따라 경성부에 새로 포함된 영등포와 마포 지역 등에 주목한다.¹⁹⁾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본 논문은 중심부/주변부성과 함께 변경성에도 주목해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의 특성과 의미를 파악한다.

서울 지역 콜레라 사태를 이해함에 있어 당대 한국 신문 및 미군정 생

17) 김백영, 2009, 『지배와 공간: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이성사, 464쪽.

18) 임종명, 2017, 앞 논문, 16~17쪽.

19) 영등포 등의 지역에 관해서는 김영근, 앞 논문, 144~145, 163~164쪽 참고.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산 문건 등이 연구 자료로 이용된다. 미군정 생산 자료는 1946년 콜레라의 전반적인 통계적 발병세, 또 군정 당국의 방역 정책이나 조치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의 군(郡)·구(區) 단위 이하 지역의 발병세나 방역 조치 등의 구체적 정보는 한국 자료에서 제공된다. 이에 유의하여, 서울 내 지역별 발병세와 변화, 그리고 그 양상과 특징 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신문 자료가 주요하게 이용된다.

하지만, 통계적 자료는 본 논문에서 지역의 콜레라 발병 경향성을 이해하는 자료로 이용된다. 당시 콜레라 발병 관련 통계 작성에 있어서 때때로 통계 항목 구성이 기관별로 서로 달랐을 뿐만 아니라, 통계 항목 구성의 용어조차 상이했다. 심지어, 동일 시점에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통계치조차 때로는 자료별로 상충하기까지 했다. 이로 말미암아, 때로는 지역 발병세의 상호 비교·분석도 용이하지 않다. 이에 유의하여, 통계 수치는 본 논문에서 주로는 발병 경향성을 이해하는 자료로 이용된다. 이에 유의하면서, 먼저 최초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I. 지연된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

5월 초순 부산에서 발병한 콜레라는 그것의 전국적 확산 초기였던 5월 말 서울에서도 감염 환자를 낳았다. 즉, 5월 28일 서울에서도 콜레라 관련 환자들이 발생해, 이들 3명 중 2명은 ‘의사(疑似) 환자’(unconfirmed case)로 판정되고 1명은 ‘진성(眞性) 환자’(confirmed case)로 확진되었다.²⁰⁾ 당시에는 콜레라 병증(病症) 현상이 있는 환자가 발견될 때, 그러한 병증을

20) 『自由新聞』 1946년 10월 26일자 「虎疫은遂終熄: 서울서死亡한患者總計八七名」; 『서울신문』 1946년 06월 01일자 「患者發生累計」.

낳은 병원체(病原體)의 콜레라균 여부를 판정할 목적의 ‘검변(檢便)’ 등의 ‘검병(檢病)’이 이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환자의 콜레라 진성(眞性) 여부가 판정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절차가 앞의 환자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져, 5월 31일자 신문은 전남 목포에서 서울에 와 “시내남산정(南山町)”에 “채류”중이던 한 청년이 “三십일에 진성 호열자[환자]인것이 판명”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로써, “호열자”는 5월 30일 “서울까지드러왔”고, 그 목포 청년은 서울 지역에서 소위 ‘1번 환자’ 또는 ‘지표 환자’가 되었다.²¹⁾

5월 30일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은 당시 남한 10개 시도 단위 지역에서의 최초 발병 시점과 비교할 때 늦은 것이었다. 당시,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5월 16일 여수에서, 또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에서는 5월 19일 인천에서, 그리고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5월 20일 대전에서,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5월 25일 청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에서는 6월 4일 울진에서 1번 환자가 발생하였다.²²⁾ 이외에 충청북도 지역과 전라북도 지역의 경우, 현재 자료상으로 그 지역의 최초 콜레라 발병일이 특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두 지역의 발병 상황에 유의할 때, 전북의 경우 6월 이전에, 그리고 충북의 경우 6월 이후에 최초로 콜레라가 발병했던 것으로 보인다.²³⁾ 이에 비추어 볼 때, 5월 30일에 발병 환자가 확인되는 서울

21) 『서울신문』 1946년 05월 31일자 「虎列刺京城에侵入: 木浦에서온旅客患者眞性으로判明」.

22) 『光州民報』 1946년 5월 19일자 「麗水에 고레라[これら; 콜레라]發生; 『中外新聞』 1946년 05월 25일자 「仁川에侵入한 虎列刺의徑路; 『東亞日報』 1946년 05월 22일자 「호열자로二名死亡: 大田에서患者發生; 『嶺南日報』 1946년 05월 28일자 「慶北에虎疫遂侵入: 淸道에 患者二名發生; 飲食物에注意코防疫에協力하라; 『서울신문』 1946년 06월 07일자 「虎疫의魔手는점점蔓延: 새患者는釜山에十一, 江原道에一名」.

23) 전북과 충북 지역의 콜레라 발병기 추정과 관련해서 각각 『東亞日報』 1946년 06월 04일자 「虎疫이猛威! 全國에波及: 64名死亡 患者二百名; 三日現在; 『서울신문』 1946년 06월 07일자 「忠北陰城에도二名」 참고.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지역 사례의 발병 시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여타 지역에 비해 늦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 지역 최초 발병자는 신상이 확인되는 여타 지역 1번 환자와는 달리 송환민(repatriate)이 아니었다. 당시 최초 발병일이 확인되는 각 지역의 1번 환자들은 그들의 신상이 자료에서 특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컨대 경북과 강원도, 그리고 전북과 충북 지역의 경우, 1번 환자의 신상이 ‘전연’ 소개되지 않는다. 반면에, 1946년 콜레라 사태가 시작되는 부산 지역 최초 발병자는 중국 상하이(上海)발 송환민으로 특정된다.²⁴⁾ 마찬가지로, 전남 여수 지역의 1번 환자는, 자료에서, ‘5월 16일 여수에 도착한 부산발 선박, 대성환(大成丸)의 300여 승객 중 경남 통영 출생자’로 소개된다.²⁵⁾ 그리고 인천 지역의 지표 환자는 중국 중부 지역발(發) 송환선으로 부산에 와서 국내 여행 중 인천 지역에서 발병한 황해도 웅진 출신 ‘귀환 동포’ 청년으로, 또 대전 지역의 1번 환자는 중국 상하이발(發) 송환선으로 부산에 돌아온 후 철도로 귀향 도중 대전역에서 발병한 ‘전북 출신 일본군 징병 해제자’로 소개된다.²⁶⁾

최초 발병자의 신상 소개는 1946년 콜레라 발병 사태와 관련해서 시

24) 기존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에서의 최초 발병이 중국 광저우(廣東)발 송환선에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인석, 앞 논문, 11쪽) 하지만, 실은 세균 검사 결과 그 배에서 발병한 환자는 의사(疑似) 환자였고, 최초 발병자는 상하이에서 송환선을 타고 온 송환민이었다. (『釜山新聞』 1946년 05월 17일자 「虎疫菌은發見안됐다: 美軍醫가方今歸還船調査中」; USAFIK, X X 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1947, “The Cholera Epidemic of 1946,” p. 30, http://archive.history.go.kr/catalog/view.do?arrangement_cd=ARRANGEMENT-0-A&arrangement_subcode=HOLD_NATION-0-US&provenance_ids=000000000034&displaySort=&displaySize=50¤tNumber=1&system_id=000000102402&catalog_level=&catalog_position=-1&search_position=0&lowYn=.) (검색일: 2020.10.12.)

25) 「麗水에 고래라發生」.

26) 「仁川에侵入한 虎列刺의徑路」; 『自由新聞』 1946년 05월 23일자 「歸還同胞船에虎疫侵入: 今後各地로波及의危險: 釜山,大田,仁川서 四十四名發見」.

사적이다. 먼저, 그것은 1946년 한국에서 만연된 콜레라의 병원지(病源地; the center of epidemic)가 중국이었고, 그 전염병이 송환자에 의해 한국으로 옮겨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전국적인 콜레라 확산 초기에 부산이 남한 내 중심 병원지로, 또 목포가 주요 병원지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현재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서울의 발병자가 여타 많은 지역의 최초 발병자들과는 달리 송환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왜, 어떻게 서울의 콜레라 발병 시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늦어졌고, 또 1번 환자가 송환민이 아니었던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의문은 당시 다수 송환민이 서울로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더욱 커지는 것이다. ‘경북통계 포털’에 따르면, 1946년 8월 20일(일부 시·도는 9월) 현재 38도선 이남의 한국인 총인구는 2년 전 인구 15,879천 명에 비해 3,490천 명(22.0%)이 증가한 19,369천 명이였다. 당시 수위(首位)의 인구 증가를 보인 곳은, 1946년 8월 현재 1,142천 명으로 2년 전에 비해 316천명(38.2%) 증가하였던 서울이었고, 그 다음 지역이 경남과 경북이었다.²⁷⁾ 그와 같은 증가 규모와 비율이 인구의 자연 증가 정도-1946년 남한 인구의 전년(前年) 대비(對比) 인구 자연 증가율은 9.3%였다는 것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었다.²⁸⁾ 또한, 종전/해방 후 남한으로 이동한 북조선 주민의 규모는 송환민의 그것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이었다.²⁹⁾ 그렇

-
- 27) 본문의 인구 통계는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생정국(Bureau of Vital Statistic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Welfare)의 1946년 8월 20일부 ‘남조선(38도이남) 지역 및 성별 현주 인구’ 조사 등에 기초해 ‘경북통계 포털’이 추계한 것이다. http://www.gb.go.kr/open_content/stat/page.jsp?LARGE_CODE=870&MEDIUM_CODE=40&SMALL_CODE=30&URL=/open_content/stat/pages/sub4_1_s2_2.jsp (검색일: 2020.11.12.)
- 28) ‘대한민국의 인구’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9D%B8%EA%B5%AC (검색일: 2020.11.19.)
- 29) ‘월남민’과 송환민의 상대적 규모와 관련하여, 이연식은 “한국전쟁 이전 남한에 유입된 「초기월남민」 규모는 해외귀환자의 약 1/5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이연식, 2018a, 「해방 직후 남한 귀환자의 해외 재이주 현상에 관한 연구-만주 ‘재이민’과 일본 ‘재밀항’ 실태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1946~1947-」, 『한일민족문제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다고 한다면, 서울 지역의 1946년 인구 급증은 종전/해방 직후 사회적 이동, 특히 일본 열도와 중국 대륙 등 한반도 바깥에 거류(居留)하던 한국인들의 한반도 송환이라는 동아시아 권역 내 인구 이동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서울에는, 경기도와 함께, 당시 콜레라 등 전염병의 동아시아 병원지였던 중국으로부터 온 송환민의 비율이 일본발 송환민의 그것보다 높았다. (반면에 1946년에 전국적으로 주요 콜레라 발병지였던 경상도 지역은 송환민의 출발 국가별 구성비에서 서울·경기의 그것과는 반대였다.)³⁰⁾ 이것은 해방 후 서울을 목적지로 하는 송환민, 특히 중국발 송환민의 서울 이동과 그곳 정착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에서 콜레라 발병이 비송환민에게서, 그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 뒤늦게 발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는 당시 취해졌던 방역 조치에서 찾아질 수 있다. 5월 5일 부산항에서의 콜레라 발생이 전해지고, 특히 5월 19일 인천 지역에서의 콜레라 환자 발생은 서울 지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이와 관련해서 1946년 05월 25일자 『中外新聞』의 다음 기사 「仁川에侵入한 虎列刺의徑路」는 시사적이다. 즉,³¹⁾

中支[중국 중부 지역]에서 귀환동포와함께 五月十日釜山에入港한배로 고국에도라와검역관계로 十五日에 상륙한후 十六日입경하야 [경성역] 역 전三興여관에 일박한후 開城과[황해도]延安을거쳐 十八日[충남 아산]白石浦로가 하숙에서일박한후 十九日새벽白石浦에서仁川에운항하는 정기선水原丸(승원약百名)을타고 十一시경에 仁川에상륙하였는데 船上에선 口[*囁]

연구』34, 84쪽).

30) 이연식에 따르면, 해방 후 서울·경기에는 중국발 송환민의 41.7%, 일본발 송환민의 19.5%가 전입한 반면 경상도에는 일본발 송환민의 58.7%, 중국발 송환민의 31.6%가 전입하였다. 이연식, 2018a, 앞 논문, 102쪽.

31) 「仁川에侵入한 虎列刺의徑路」.

吐설사가심하야 괴로워하였으므로 동승자가간호하야 동일-시경에仁川德生院에 입원시켰으나 二十日 下午四시경사망하였다

여기에서 당시 신문 지상에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상세하게 일(一) 환자의 일자별 동선과 그의 19일 발병 상황이 소개되고 있다. 그와 같은 상세 역학(疫學) 보고서가 앞 기사에서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여타 신문 지상에서도 23세 황해도 청년의 편력기(遍歷紀)와 발병기(發病記)는, 기사 크기에 차이가 있기는 했어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³²⁾ 여기에서 보이는 높은 관심은 인천이 서울의 ‘문호’였기에 인천에서의 콜레라 발병이 서울 지역으로의 발병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120만 서울 시민의 불안감’에 기인한 것이었다.³³⁾ 서울 시민의 불안감과 긴장은 그 ‘인천 1번 환자’의 서울 동선, 즉 “서울역전 三흥[*興]여관에 투숙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출동하여 동여관을 소독”하고 그 후 그 ‘귀환 청년’에게서 감염된 콜레라 환자의 발생 여부에 주의를 기울였던 서울시 보건후생부의 모습에서도 확인된다.³⁴⁾

또한, ‘지척(咫尺)인 인천’에서 콜레라가 발병한 후 서울시 보건 당국의 긴장은 6월 상순에 “인천(仁川)지방을왕복하는사람이나 또인천에살고 있는사람은 특히주의하야 하나도빠짐없이 이[*예방]주사를맞도록하여 달라”고 “주의를환기”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³⁵⁾ 여기에서 보이는 서울

32) 예컨대 『中央新聞』 1946년 05월 23일자 「虎疫朝鮮內侵入! 釜山, 大田, 仁川에患者發生」; 『自由新聞』 1946년 05월 21일자 「仁川에眞性虎列刺發生」; 『中央新聞』 1946년 05월 21일자 「仁川에虎疫患者: 上海에서온戰災民」; 『漢城日報』 1946년 05월 21일 「仁川에眞性虎列刺: 患者는上海에서온戰災民」; 『東亞日報』 1946년 05월 21일자 「호열자調査XX[관독 불능] 仁川으로派遣」; 「歸還同胞船에虎疫侵入」; 『漢城日報』 1946년 05월 24일자 「虎疫! 保健에SOS: 벌서死亡者十六名; 病菌은戰災民따라潛入」; 『漢城日報』 1946년 05월 24일자 「全[서울]市民에게豫防注射」, 참고.

33) 「仁川에侵入한 虎列刺의徑路」.

34) 「全市民에게豫防注射」.

35) 『大衆日報』 1946년 06월 09일자 「咫尺京城에虎疫蔓延」. 참고로, 앞 기사를 게재한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시민의 ‘불안감’과 서울시 당국의 ‘긴장’은, 그리고 ‘서울의 문호인 인천을 지킨다’는 의식은 서울에서 방역 인력들이 인천으로 신속하게 파견되어 그 지역에 대한 예방적 방역 조치를 실행토록 하였던 것의 맥락을 이루었다.³⁶⁾

또한, 그와 같은 긴장과 불안감 하에서 5월 하순 서울시에는 시 관련 조직부터 정회(町會)와 같은 ‘말단의 자치 조직’까지 그것들을 망라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예방적 방역 조치’를 취하였다. “코레라[*콜레라]”가 “歸還同胞와함께十五日釜山에 상륙[*상륙]”한 이후, “각처에서 전재민[*송환민]이 모여들고있음으로 언제이 악역[(惡疫)의 침입을바들던지도 몰으는형편”에서 5월 24일 남한 전체에서 40여 명의 환자와 사망자 23명이 발생하자, “각항구(港口)를비롯하하 각지에만연하는 호열자”로 인해 “국민은전울에싸”였다.³⁷⁾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는 방역본부와 각 구청, 그리고 각 정회(町會)의 방역 조직으로 이어지는 “철벽의 방역진”을 구축해 방역 관련 조직을 체계화하였다.³⁸⁾

그리고 미군정 당국에서는 방역을 위한 “必死의 노력”과 “맹활동을 개시”하였다.³⁹⁾ 먼저 당국은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방 주사 실시 계획을 입안하고 그것을 실천하였다. 즉, 경기도 보건후생부에서는

『大衆日報』가 인천 지역 신문이었기 때문에, 앞 기사의 제목은 인천의 관점에서 서울을 “咫尺”이라고 표현하였다.

- 36) 인천 지역에서의 ‘예방적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임종명, 2020, 앞 논문 참고.
37) 『東亞日報』 1946년 05월 25일자 「各地로蔓延하는『虎列刺』: 現在H[二十]名死亡, 48名이發生」; 「全市民에게豫防注射」; 『中外新聞』 1946년 05월 24일자 「虎列刺防疫에必死的: 緊急會議열고對策講究」. 본문의 ‘전재민’, ‘전제 동포’는 ‘귀환민’ 또는 ‘송환민’을 의미하는데, 해방 직후 사용된 ‘전재민·동포’의 용례적 의미와, 그것의 당대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이연식, 2018b, 「해방직후 조선인 귀환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한일민족문제연구』6, 135~36쪽; 이연식, 2018a, 앞 논문, 95쪽 참고.
38) 「全市民에게豫防注射」; 「虎列刺防疫에必死的: 緊急會議열고對策講究」; 『自由新聞』 1946년 05월 24일자 「十七名은絶命: 虎列刺各地서더蔓延; 서울防疫陣」.
39) 「虎列刺防疫에必死的: 緊急會議열고對策講究」

“五백만경기도민에게 호열자예방주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해, 서울시에는 24, 5일에 “시민에게 주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⁴⁰⁾ 이어서 서울시 보건위생부에서는 “방역에만전을 기하고자” 경기도 보건후생소와 서울 시내 각 구청 및 경찰서와 함께 “긴급방역회의를 개최하고 방역활동에 관한구체적방책을협의”하고, “예방주사는느저도 六월초순에는 전시민에게 一제히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⁴¹⁾ 그리고 결정된 ‘방책’은, 뒤에서 보듯이, 6월 들어서자마자 실행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서울의 1번 환자가 발생했던 것이다.⁴²⁾

서울 방어와 관련해 보다 중요한 것은 ‘수부(首府) 방어’라는 관점에서 비(非) 서울 지역에서 실행된 ‘예방적 방역 조치’였다.⁴³⁾ 이와 관련해서 당시 실시된 서울행 열차에 대한 방역 조치는 시사적이다. 미군정 보건 당국은 5월 28일부터 경부선·호남선 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여행하는 여객 전원에게 경부선과 호남선이 합류하는 대전역에서 콜레라 예방 주사를 시술하였다.⁴⁴⁾ 이것은 균을 가지고 있지만 검역 과정이나 물에 내린 이후 아직 ‘발견’되지 않은 광저우나 상하이 등 중국발 송환민이 각지에서, 특히 서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콜레라를 감염시킬 가능성을 예방해 그 지역에서의 콜레라 만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전 예방 조치였다.⁴⁵⁾ 이처럼 콜레라의 전국적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서울 방어의 목적으로

40) 『東亞日報』 1946년 05월 24일자 「호열자豫防에總動員: 廿[*二十]二日에實施; 호열자豫防注射」; 「全市民에게豫防注射」.

41) 『東亞日報』 1946년 05월 25일자 「虎疫市内侵入警戒: 서울市에緊急防疫會議」.

42) 6월의 집중적 방역 조치는 뒤에서 논의된다. 그 이유는 현재 논의가 ‘왜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에서는 최초 발병이 5월 말에 발생했는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43) ‘비(非)서울’은 기왕의 용례에서는 ‘지방’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방’이 ‘수도’나 ‘도시’ 등의 ‘중심부’를 중심으로 하여 위계적으로 배치된 ‘지정학적(geopolitical) 호명’이기 때문에, ‘지방’의 사용은 회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필요성에 유의하여, 본문에서는 ‘잠정적으로’ ‘비서울’이 사용된다.

44) 『서울신문』 1946년 05월 31일자 「大田서旅客豫防注射」.

45) 「歸還同胞船에虎疫侵入」; 「大田서旅客豫防注射」. 서울 방어 조치로서의 성격이 명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로 당시 유일한 전국 교통망이었던 철도에 대한 예방적 방역 조치가 5월 하순부터 대전 지역에서 취해졌다.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노력들이 서울에서 송환민에게서 콜레라 발병이 일어날 가능성을 약화시키면서 또 콜레라의 서울 발병 시기를 늦추었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II. 발병 직후 콜레라의 강변 지역 확산

하지만 늦어지기는 했어도, 서울에서도 콜레라는 발병했다. 뒤늦게 5월 말 서울 지역에서 발병한 콜레라는 6월에 들어서자마자 계속해서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퍼져 나갔다. 즉 그달 1일에 사망자 1명, 그 다음 날 종로 누하정(樓下町)에 음성 환자 1명 발생으로 환자 총 3명, 다시 4일에는 사망자 1명 발생으로 환자 총 2명, 또 6일 현재 누계 환자 5명에 2명 사망이라는 서울 지역 내 콜레라 전염·발병 초기의 기록이 나타났다.⁴⁶⁾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전염 초기의 환자들은 대개 서울 외곽 거주민들이었다. 당시 신문 지상에 소개된 콜레라 환자·사망자들은 대개, 예컨

시적으로 나타난 조치는, 뒤에서 이야기되듯이, 7월에 취해지는 미군정의 ‘서울 여행 금지’였다.

- 46) 『서울신문』 1946년 06월 02일자 「서울에患者三名: 疑似患者二名도眞性」; 『現代新聞』 1946년 06월 07일자 「虎疫眞性: 서울에도一名」; 『東亞日報』 1946년 06월 03일자 「虎疫患者 樓下町에도發生」; 『서울신문』 1946년 06월 05일자 「虎列刺防疫에必死的: 一般은當局및고流言에動搖말라; “컬랜”保健厚生部長談」. 그런데 당시 신문 지상의 통계는 불안정한 것이었다. 예컨대 『朝鮮日報』 1946년 06월 04일자 「虎疫患者날로增價: 三日까지總數九名」은 환자 9명과 사망자 4명 발생을 보도한다. 그렇지만 그 통계에는 의사 환자도 포함된 것이었기 때문에 세균 검사를 통해 확진된 ‘진성 환자’의 누계는 계속해서 수정·변경된다. 즉, 진성 환자나 의사 환자가 구별되지 않고 양자가 ‘환자’라는 단일 항목으로 통계 처리될 경우, ‘검균’(檢菌) 후 환자 규모가 오히려 축소되는 경우도 목격된다. (이것은 사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와 같은 당대 통계 처리 관행(practice) 때문에, 신문 기사에 제공되는 콜레라 환자·사망자 수치의 독해에는 주의가 요망된다.

대 청계천에 연한 왕십리(往十里) 위의 상왕십리, 또 한강에 연해 있는 용산구 동빙고정(東氷庫町), 마찬가지로 당시 서울의 포구(浦口)였던 마포에 접해 있는 서대문구 염리정(鹽里町), 또 청계천에 인접한 동대문구 신설정(新設町) 등에 거주하고 있었다.⁴⁷⁾ (물론 인왕산으로 연결되는 서촌(西村)의 누하정의 발병 사례에서처럼 서울 도심 외곽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서울 1번 환자 발생 직후 미군정 당국이 ‘세브란스의전 학생 30명을 경성역에 파견하여 그곳에서 외래 여행객 등에 대해서 예방 주사를 처치’하는 동안 한강과 청계천 등에 연(沿)해 있거나 근접한, 서울 외곽 지역들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었다.⁴⁸⁾

서울에서의 연이은 콜레라 발병에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 ‘병원지(病源地)’에 관한 당시 논의이다. 앞의 6월 6일 현재 통계에서 보여진 콜레라 환자 발생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예컨대 11일 현재 서울 시내에는 7명의 환자가 발생해 그 중에 3명이 사망하고, 또 14일 현재 환자 9명에 사망자 3명이 누적되었다.⁴⁹⁾ 이처럼 누적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던 중에 6월 9일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북아현정과 용산구 동빙고정, 또 오늘날 용산구 청과동의 일부인 청엽정(靑葉町) 등지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다.⁵⁰⁾ 그런데 그들, 특히 앞의 두 지역 환자의 경우, “전혀 [부산과 같은 지역에] 여행한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서울근교

47) 『東亞日報』 1946년 06월 04일자 「市內에陰性患者 五名도發生」; 『朝鮮日報』 1946년 06월 04일자 「虎疫二名患者」; 『自由新聞』 1946년 06월 04일자 「虎列刺 南朝鮮에猖獗, 各處에 眞性患者 續發: 서울 眞性患者 1名 뿐」; 『自由新聞』 1946년 06월 04일자 「三日도發生」; 『서울신문』 1946년 06월 06일자 「市內에虎疫: 眞性이二名; 發生附近 交通遮斷」; 『서울신문』 1946년 06월 07일자 「眞性또二名: 六日서울에發生」.

48) 「三日도發生」.

49) 『東亞日報』 1946년 06월 12일자 「虎列刺患者: 市內또二名增加」; 『東亞日報』 1946년 06월 15일자 「虎疫에百七十死亡」.

50) 『東亞日報』 1946년 06월 11일자 「市內또二名發生」; 『漢城日報』 1946년 06월 13일자 「市內에또二名」.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에 병원지(病源地)가있지 않은가 하여 맹열히 조사”하였다.⁵¹⁾ 물론 조사 결과는 현재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것은 한강에 연해 있던 동·서빙고정 지역이 콜레라 발생과 관련해서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앞에서 서울 지역 지표 환자의 발생 직후 발병 상황을 검토하면서 동빙고정에서 환자가 발생했던 것을 목격했다. 또 지금 9일 환자의 발생 지역 중 하나가 동빙고정인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군다나 콜레라 환자로 판명되어 11일에 병원에 수용된 한 환자와 관련해서, 그가 전날 “서빙고에서불량한음식을먹”었다는, 달리 표현하면 ‘서빙고 지역에 출입하였다’는 환자 동선이 신문 지상에서 제공되고 있다.⁵²⁾ 이처럼 서울 지역 발병 초기 서울 외곽 지역, 그중에서도 “한강을등지고잇”는 동·서빙고정 지역과 같이 한강에 연해 있거나 그것에 가까운 지역에서 “[콜레라가]번식을시작”해 적지 않은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면서, ‘동·서빙고 양정(兩町)이 경성 부내(府內)에서 가장 심한 발병세의 위험시대’로 비정(比定)되고 있었다.⁵³⁾

한강 강변 지역에서의 콜레라 집중 발병은 한강 연안이 당시 서울 지역에서 병원지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당시 상수도가 서울 전지역에 보급되지 못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수도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한강 연안 주민이나 식당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한강] 강변에[서]야채를 씻거나 강물에 음식물을씻”고 있었다.⁵⁴⁾ 이와 같은 한강 연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문화와 식당 관련 업종의 업태(業態; business practice) 하에서 한강에 연한 지역에서 수인성(水因性; waterborne) 전염병인 콜레라가 계속해서 발병하고 있었다.

51) 『漢城日報』 1946년 06월 13일자 「서울에病源地 있다」.

52) 『東亞日報』 1946년 06월 13일자 「虎列刺患者: 靑葉町에 또發生」.

53) 『中央新聞』 1946년 06월 18일자 「京城은漢江沿岸이 危險地帶로判明」; 『中央新聞』 1946년 06월 23일자 「漢江물에 虎列子菌이다: 市民의注意더욱緊要」.

54) 『朝鮮日報』 1946년 06월 17일자 「강물은危險: 水泳, 蔬菜洗濯을禁止」.

서울에서 콜레라 전염병은 6월 초순까지 “한참동안 창궐”하다 중순에 일시 “뜸하”다 6월 하순 “또다시 환자가속출하기시작”해 “맹열한기세로 속속시민의생명을따고 있”었다.⁵⁵⁾ 이러한 시기에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十三일부터열흘동안동빙고서빙고에서四명이연거퍼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⁵⁶⁾ 더군다나 경기도 강화(江華) 지역에서 “[6월] 十一일 범선으로 서울 마포(麻浦)에가서 생선을파러가지고 十四일에귀가하여 十七일에 사망하였고 그의가족도 모조리전염”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⁵⁷⁾ 여기에서 “[강화] 호열자환자의 리병경로(罹病經路)”는 동·서빙고 지역이나 마포 지역과 같이 한강에 연한 지역들에서 콜레라가 발병하고 있음을, 따라서 한강 연안 지역이 “危險地帶”로서, 뒤에서 보듯이, 경기 지역에서, 또 서울 지역에서도 일종의 병원지 또는 발원지로 역할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를 전제로 이야기를 계속하면, 당시 마포는 한강 강변 지역 중에서도 주요 병원지였다. 당시 마포는 그것이 길게 한강에 연(沿)해 있다는 자연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각종 어물과 물산의 집산지였다. 이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따라서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여서, 경성부와 경기도, 그리고 어업조합연합회 등이 그 지역 어(魚)시장 관리권을, 보다 정확하게는 ‘다량의 수산물의 집산(集散)처리’ 권한을 두고 경쟁하였다.⁵⁸⁾ 이처럼 마포는 그것의 지리적 이점으로 말미암아 어물 등의 집산

55) 『서울신문』 1946년 06월 23일자 「注意!虎列刺漸次蔓延: 서울市内에患者十四名; 『朝鮮日報』 1946년 06월 24일자 「京城市内虎疫患者: 벌써二十六名; 十一名이死亡.」. 예컨대 17일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진성 환자 12명이 확인되어 그중 8명이 사망하였는데, 6월 21일 현재에는 진성 환자 40명에 사망 11명이 보고되었다(『朝鮮日報』 1946년 06월 21일자 『百九十萬名에免疫注射; 『注意!虎列刺漸次蔓延』).

56) 「京城市内虎疫患者; 『서울신문』 1946년 06월 16일자 「蔓延一路의虎疫: 十五日現在患者六百十九名」.

57) 『大衆日報』 1946년 06월 25일자 「江華虎疫은眞性」.

58) 『朝鮮日報』 1946년 08월 02일자 「一府에 一魚市場: 漁業組合聯合會進出을抑制; 麻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지였다.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해서, 앞의 ‘강화 콜레라 환자의 동선’에서처럼, 마포는 병원지로 기능하였다.

병원지로서의 마포의 모습은 어렵지 않게, 예컨대 인천 앞바다의 삼목도(三木島)에서의 6월 26일 발병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그때 한 반어반농(半漁半農) 업자가 “서울마포(麻浦)에가서 생선을과러가지고도라오든 지난달二十六일부터 구도와설사를 계속” 하였다.⁵⁹⁾ 나아가, ‘100여 척이 선박한 마포에서 일(一) 선원이 27일 진성 콜레라 환자로 판명’되었다.⁶⁰⁾ 이들 사례가 보여주듯이 경기 지역의 주요 병원지였던 인천 연근해 지역과 연결되는 한강에 연해 있던 마포는 당시 서울 지역에서 병원지로 기능하고 있었다.⁶¹⁾

그런데 마포 지역이 콜레라 발원지로서 기능했던 것이 단순히 그것의 자연 지리적 위치의 결과만은 아니었다. 마포 지역은 서대문 지역과 함께 “元來” 서울의 상수도 체계상(上) “末단[端]給水地”로서 홍수 이전에도 수돗물 공급이 “不安全”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밤이면 조금씩 나오든 물”로 “不衛生的生活”을 하였다.⁶²⁾ 이것은 홍수 이전에도 마포 지역이 서울의 주요 콜레라 발생지였던 이유의 일단(一端)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그 지역들이 서울에서 주요 발병지였던 것은 그 지역의 빈약한 상수도 설비로 말미암은 ‘비위생적인 생활’과 연관 있던 것이다.

나아가 주요 콜레라 발병지로서의 마포 지역상(相)은 종전/해방 직후 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1946년 현재 마포에는 남한 지역 산물(產物)만이 아니라 “남북선[(南·北鮮)]물가의 차

浦市場에實權附與.

59) 『大衆日報』 1946년 07월 02일자 「病源은鹽石魚: 永宗島虎疫群報倒着」.

60) 『自由新聞』 1946년 07월 01일자 「麻浦에虎疫: 새우젓배에서發病」.

61) 인천 지역 및 그 연근해 지역의 경기 지역 병원지 역할은 임종명, 2020, 앞 논문 참고.

62) 『水産經濟新聞』 1946년 07월 02일자 「水禍뒤에給水難: 飲水不足인西大門, 麻浦區」.

가 만함을 기화”로 “한강수로를 이용”해 거래되는 “북선사과와 남선일용품” 등의 남북 밀교역품, 심지어 중국과의 밀무역품 또한 집산되고 있었다.⁶³⁾ 특히 마포는 ‘1946년 여름 이래 중국 화북 지방의 다례(大連)과 텐진(天津), 또 칭다오(靑島)와 옌타이(煙台)’로부터 “인천부근에있는 여러섬”을 통해 중국 밀무역품이 들어오는 곳이었다.⁶⁴⁾ 그런데, 당시 텐진 등의 화북 지역이 콜레라 발병지이고 인천이 경기 지역의 주요 발병지였다면, 앞의 밀무역 경로는 중국과 인천 지역에서 발병한 콜레라가 마포로 전해지는 통로였을 것이다.⁶⁵⁾

여기에서 보이는 밀(密)교역과 밀무역은 종전 직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중국 화북·화중 지역 점령을 통해 서해에 대한 독점적 지배·통제권을 행사하던 일본 제국의 패전과 해체 이후 ‘황해’와 ‘황해 연안의 지역 네트워크’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다.⁶⁶⁾ 그런데 일본 제국의 종전 후 해체 이후 국가가 전일적(專一的)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 곳은 서해만이 아니었다. 해방 후 마포의 대중(對中) 밀무역로였던 한강에도, 심지어 한강 연안의 마포에서까지도, “海賊船[이]出沒”해 “실엇든“쌀”數十石을強奪逃走”해 “요

63) 『朝鮮日報』 1946년 05월 03일자 「暴利하다被檢」; 『大東新聞』 1946년 08월 22일자 「[황해도 옹진]巡威島近海에海賊: 商船襲擊掠奪; 靑年一名까지拉致」; 『自由新聞』 1946년 09월 02일자 「漢江岸海賊團一網打盡」; 『自由新聞』 1946년 09월 05일자 「江岸海賊團續々[*續]綻露被害甚大」.

64) 『朝鮮日報』 1946년 10월 30일자 「孤島서物物交換: 痛嘆할密貿易內幕」.

65) 중국 화북과 동북 지역의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전염병 발병상은 General Headquarters/Supreme Commander for Allied Powers G-III, 1947, “Report on Mass Repatriation in the Western Pacific,” p. 48. <https://dl.ndl.go.jp/infor:ndljp/pid/11223003> (검색일: 2020.10.29.); 황선익, 2013, 「동북아정세와 중국지역 한인의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46, 299쪽; 김춘선, 2007, 「중국 연변지역 전염병 확산과 한인의 미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43, 특히 105, 119~120쪽 참고.

66) 밀교역·밀무역을 통해 표현되고 있던 종전/해방 직후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황해 연안의 지역 네트워크’의 모습은 임종명, 2020, 앞 논문 참고.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지음[46년 3월] 쌀실은 배가 마포연안에 들어오기를 끄리고있서[*꺼리고 있어] 마포서에는 해적선을 엄중경계중”일 정도로 한강과 그 연안 마포 지역에는 국가의 전일적 지배·통제력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었다.⁶⁷⁾ 바로 이와 같은 종전/해방 직후 동아시아와 한반도 상황에 의해 촉진되면서, 마포는 “호역상항”(虎疫商港)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요 콜레라 병원지의 하나가 되었다.⁶⁸⁾

그런데 한강 연안 지역의 콜레라 빈발과 마포 등의 콜레라 병원지로서의 역할은 콜레라 전염병의 지역내 발병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다. 앞에서 보았던 서울 지역에서의 콜레라 발병 상황으로 말미암아, 당시 사람들은 “이[콜레라]균(菌)은 한강 하류와인천항의 연안지역에 모다퍼져있을것이 생각”하고, “漢江·仁川沿岸은汚染地域”으로, 그리고 “서울은虎疫蔓延地”라고 표현하게 되었다.⁶⁹⁾ 이는 “호열자균이 바닷물로인하여 얼마나빨리전염”되는가를 “실증(實證)”하였을 뿐만 아니라, “漢江물에虎列子菌있다”고 생각되면서 한강 연안 지역이 경기도와 서울의 ‘병원지’ 또는 “전염원지”로 감정(勘定)되고 있었음을 뜻한다.⁷⁰⁾ 한강 연안의 ‘전염원지’ 비정은 당시 서울 지역 내 콜레라 감염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서울에서는 6월 들어 한강 강변 등의 시 외곽 지역에서 지역 감염이 발생하고 있었다.

67) 『東亞日報』 1946년 03월 05일자 「漢江沿岸에海賊船出沒: 실엇든“쌀”數十石을強奪逃走」.

68) 『自由新聞』 1946년 07월 08일자 「遮斷地에食糧도안주고 罹病者를그대로放置: 虎疫處置에麻浦區民非難」.

69) 『朝鮮日報』 1946년 06월 18일자 「서울은虎疫蔓延地: 漢江·仁川沿岸은汚染地域: 十六日十六名發生」.

70) 「江華虎疫은眞性」; 「서울은虎疫蔓延地」.

Ⅲ. 홍수 이후 콜레라의 천변 지역 만연

서울 지역 내 콜레라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6월 중·하순의 대홍수는 “호열자 유행에도 큰영향을주”면서, 7월에 서울 지역 전체의 발병 상황을 일층 악화시켰다.⁷¹⁾ 서울 지역 홍수가 끝나가고 있었던 6월 27일 현재 환자 28명, 사망자 11명이었던 서울 지역 발병세는 홍수가 끝난 7월에 들어 급격히 악화한다.⁷²⁾ 예컨대, 7월 5일 하루에 8명의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는 “서울에드러온 호열자는 [6월 26일까지도] 매일 한두명 식의새환자를 내이고잇”던 이전 발병 상황과도 대비되는 것이었다.⁷³⁾ 이에 “炎暑期”의 더위까지 겹치면서 “나날이” “虎列刺가더욱창궐蔓延”해, 7월 말 누계 “[콜레라]發生者” 103명 중 “約六〇%”인 64명이 그달에 발병하였다.⁷⁴⁾ 비록 서울 지역 발병세가 여타 지역의 그것과는 비교될 바 아니긴 했어도, 홍수 이후 서울에서는 콜레라 만연세가 급격하게 악화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콜레라 만연이 단순히 ‘순전히’ 대홍수의 결과는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서 6월 25일 2명의 환자가 발생했던 서대문 지역의 현저정(峴底町) 사례는 시사적이다.⁷⁵⁾ 그런데 현저정에서 25일 처음으로 콜레라가 발병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지역에서는 이미 그달 21일과 22일 부부 포함 3명의 환자가 발생했었다.⁷⁶⁾ 한강 지천(支川)인 옥천(旭川)의 발원지인 현저정의 사례는 이미 시 외곽 지역과 함께 도심지 인근 빈민

71) 『自由新聞』 1946년 06월 27일자 「장마속에氣勢이더 虎疫患者날로增加」; 『現代日報』 1946년 06월 27일자 「虎疫患者: 京畿도에만72名」.

72) 『大東新聞』 1946년 06월 29일자 「虎疫 市内蔓延」.

73) 『水産經濟新聞』 1946년 07월 06일자 「虎疫서울에도八名」; 『自由新聞』 1946년 06월 27일자 「京城에도新患者續出」.

74) 『大東新聞』 1946년 07월 04일자 「市内에虎疫漸益蔓延: 十一日부더防疫淸掃強調週間」; 『水産經濟新聞』 1946년 08월 02일자 「甕津延白이尤甚」.

75) 『現代日報』 1946년 06월 27일자 「虎疫患者: 京畿도에만72名」.

76) 「京城市内虎疫患者」; 『東亞日報』 1946년 06월 25일자 「市内에도 全家族感染」.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지역에서 발생해 진행되고 있던 콜레라 감염 현상이 홍수를 계기로 급속히 악화하고 있던 서울 지역 발병 상황을 암시한다.

특히, 홍수를 계기로 악화하던 발병세에는 상수도과 같은 도시 기반 시설 빈약이라는 문제가 또한 개재된 것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의 발병과 식수원(食水源)의 상관성을 설명한 여인석의 지적은 시사적이다. 그는 ‘1946년 콜레라 유행기에 홍수가 겹치면서 서울 시민 대다수가 식수원으로 사용되던 우물이 콜레라균에 오염되어 콜레라 피해가 컸다’고 지적한다.⁷⁷⁾ 이는 상수도 공급 문제가 평소에는 ‘비위생적 생활’의 문제와 연결된 것이고, 또 수용성 전염병인 콜레라의 유행 시기에는 콜레라 발병과 확산과 연결된 문제였음을 이야기해준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와 마찬가지로 해방 직후에도 ‘서울 시민’은, ‘인천 등 여타 도시민’과 마찬가지로, ‘수도 문제’로 “물기근에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⁷⁸⁾ 이러한 상황에 콜레라 유행과 홍수까지 겹치면서, ‘물 기근’을 겪던 지역에서 콜레라 발병 가능성은 상존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홍수 이전에도 서울 지역 주요 콜레라 발병지였던 마포와 서대문 지역은 홍수 이후에도 “給水難”을 겪는다. 당시 서대문과 마포 지역에 수도물을 공급하던 ‘급수관에 폭우 이후 쓰레기 침전물 등이 쌓이고, 더군다나 폭우로 혼탁해진 한강물을 정수 처리할 약품을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서 수도물 공급에 문제가 발생해 서대문구와 마포구 주

77) 여인석, 앞 논문, 13쪽. “일제 시기를 통틀어 우물은 조선인 70퍼센트가 이용하는 음용수의 주된 원천”이었다 한다면, 해방 직후 다수의 서울 시민들 역시 우물을 식수로 사용했을 것이다(김백영, 앞의 책, 449, 455쪽).

78) 『朝鮮日報』 1946년 08월 02일자 「물飢饉解消된다: 二千六百萬圓으로水道修利.」 식민지 시기에 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서울 시민들조차도 “만성적인 급수량 부족으로 인한 여름철의 잦은 단수 및 겨울철의 혹한기 동파 사고, 그리고 설비의 미비와 노후화로 인한 수질 저하”의 문제를 겪었는데 특히 그들에게 “여름철의 단수는 연례 행사와 같이 이루어졌”다(김백영, 앞의 책, 460쪽). 상수도 문제는, 본문 자료에서 보듯, 해방 직후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었다.

민들이 빗물을 받아 음식을 조리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同地帶住民들이” “當局에 應急對策을要望”할 정도로 “府民衛生으로보아 또 猛威로蔓延되고있는 虎疫現狀에비추워 到底히放置할 수 없는 喫急事의 하나”였다. 더군다나 그 문제는 수도 공급 문제가, “一週日內로回復”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京城府配水係” 담당자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단시간 내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다.⁷⁹⁾ 이처럼 홍수로 더욱 나빠진 도시 기반 시설 문제로 말미암아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포와 서대문 지역은 서울 지역의 주요 콜레라 발병지로 자리 잡았다.

이에 유념하면서, 지금부터는 대홍수 직후 시내 발병 상황의 지역적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앞에서 우리는 6월 중·하순 대홍수 이전 시기 주로 서울 외곽 지역, 특히 한강에 연한 지역과 빈민 지역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음을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수는 이후 주요 콜레라 발병지의 변화를 낳는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표는 시사적이다. 즉, 이 표에서 제시된 지역들은 경성역과 본동정, 대흥정, 아현정과 봉래정을 제

【표 1】 7월 2일 현재 서울의 정(町)별 콜레라 환자 발생 상황

용산	마포항	신설	동빙고	북이현	경성역	본동	서빙고	염리	대흥	아현	봉래
1	1	2	3	1	1	1	1	1	1	1	1

출전: 『大韓獨立新聞』 1946년 07월 03일자 「虎疫서울서猛威: 二日現在死亡者九名」; 『水産經濟新聞』 1946년 07월 04일자 「서울의虎疫: 二日現在死亡者九名」

외하고 이미 앞에서 검토된 지역이다. 이것은 대홍수 이후에도 그 이전의 지역적 발병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새로이 발병 지역으로 추가된 지역 중 영등포구 본동정(本洞町) 지역은 한강에 연한 곳이다. 또한 대흥정(大興町) 지역과 아현정(阿峴町) 지

79) 「水禍뒤에給水難」.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역은 행정적으로 마포구에 소속된 지역이었다. 그리고 용산구 경성역 지역과 중구 봉래정(蓬萊町) 지역은 동일 지구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접(相接)한 지역이다. 이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한강에 연한 지역이거나 대홍수 이전의 주요 발병 지역에 연해 있던 지역들에서 대홍수 이후 콜레라가 발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7월 3일의 콜레라 발생 지역을 보여주는 7월 5일자 신문 기사들에서도 확인된다. 그 기사들은 ‘3일에 흑석정(黑石町) 2명, 아현동 2명, 신공덕정 1명의 환자가 발생해 그 중 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한다.⁸⁰⁾ 여기에서 새롭게 등재된 흑석정은 본동정과 마찬가지로 영등포구에 소속된 지역으로 한강에 연해있고, 또 신공덕정은 흑석정과 마찬가지로 한강에 연한 마포구의 일(一) 지역이다. 이처럼 홍수 이후에도 6월 하순 “大量의降雨量”으로 “南漢江 北漢江 上流에서는 雨量이만음으로 第一危險”해 “江邊一帶”에 대해 “極히警戒”가 요청되는, 그래서 “[용산경찰서 등]소관경찰당국은 방역에힘을쓰고있”었던 한강에 연한 지역에서 콜레라가 일층 만연하였다.⁸¹⁾

7월 초 새로이 서울의 주요 발병지로 등재된 지역들의 이해에 있어 6월 중·하순의 홍수는 유용한 실마리이다. 먼저 6월 26일 현재 서울의 구별(區別) 강수량을 보여주는 다음 표를 함께 보도록 하자.

【표 2】 6월 28일 현재 서울의 구별(區別) 강수량(단위 밀리미터)

구(區)	성북	성동	서대문	용산	동대문	영등포
강수량	198	179	21	231	(미상)	473

출전: 『서울신문』 1946년 06월 27일자 「南朝鮮一帶·豪雨로水害甚大」

80) 『中外新報』 1946년 07월 05일자 「府內에서하로五名이發生」; 「서울市內도二十九名」.

81) 『水産經濟新聞』 1946년 06월 27일자 「漢江又復增水形勢: 江邊一帶警戒必要」; 『大東新聞』 1946년 06월 27일자 「龍山方面水害狀況: 구호, 방역에 경찰대활동」.

위 표는 홍수 이전에도 주요 발병지였던 용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다량의 비가 내렸지만, 홍수 이후 새롭게 주요 발병지로 등재된 영등포 지역에서는 여타 지역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렸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7월 이전의 발병 경향이 7월 초에도 계속되는 한편, 홍수기에 호우가 있었던 지역이 새로이 서울 지역 내 집중 발병지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영등포 지역이 1936년의 ‘부역(府域) 확대’에 따라 새로이 경성부로 편입된 ‘변경 지역’이라는 점이다. 그렇다 한다면, 변경 지역에서의 콜레라 발병이 홍수 직후의 특징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7월 초 전후에 새롭게 청계천에 연하거나 그것에 근접한 지역에서도 콜레라가 집중적으로 발병했다. 청계천은 식민지 시기 북촌과 남촌의 경계 지역으로서 1930년대 중반 “오염은[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러 악취가 코를 찌르고 각종 ‘전염악질(傳染惡疾)의 저균장(貯菌場)’”이라고 이야기될 정도가 되었다.⁸²⁾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청계천은 6월 말 서울 지역 홍수 시기 “淸溪川氾濫을警備코저本町警察署[오늘날 중부 경찰서]에서는各派出所를總動員하여警備에努力”해야 할 정도로 범람 우려 지역이 되었다.⁸³⁾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앞의 7월 2일 현재 통계는 도심 외곽 지역으로서 청계천에서 가까운 신설동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하여 또 다른 청계천 천변 지역에서의 발병 사례가 보고된다. 즉 경기도 연천에 귀성하였다가 귀가한 성동구 신당정(新堂町) 거주 중년 남성에게 7월 9일 콜레라가 발병해 3일 후인 12일에 병원에서 확진되었다.⁸⁴⁾ 그런데, 이들 지역 모두가 당시 서울 도심의 외곽 지대라 한다면, 7월 초까지 주로 도심 주변·외곽 지역, 그 중에도 청계천에 접하거나 그것에 가까운 지역에서 콜레라가 발병하고

82) 김백영, 앞의 책, 454쪽.

83) 『水産經濟新聞』 1946년 06월 27일자 「淸溪川에도警戒」.

84) 『自由新聞』 1946년 07월 14일자 「新堂町에虎疫: 十二日에도發生」.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7월 이후 서울 도심 일부 지역에서도 콜레라가 발병한다. 7월에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콜레라 발병자가 나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⁸⁵⁾ 이를 배경으로 하여, 7월 6일 처음으로 “都心” 내지는 “장안심장부”이었던, 오늘날 중구 명동인 명치정(明治町)에서의 콜레라 발병 사실이 전해지면서 “일반”은 “전전공공”하게 되었다.⁸⁶⁾ 또한 “날음식과 생과실의 뒤를따라드는 호열자가 극성”을 보이는 여름에 “시내 중앙지대”인 종로구 가회정(嘉會町)에서 16일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다.⁸⁷⁾ 그렇지만 이들 사례는 문자 그대로 ‘드문’ 경우였다. 즉, 서울에서 누적 환자 91명과 그 중 누적 사망자 80명을 기록하였던 7월 26일 현재에도 ‘콜레라의 도심지 침입’에 경악하는 비명 소리를 들려주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⁸⁸⁾ 주로는 서울 도심 외곽, 예컨대 7월 24일 각각 1명의 “[악역(惡疫)호열자에 걸린] 신환자가 판명”된 서촌(西村) 통의정(通義町)이나 성북정(城北町)과 같은 도심 외곽 지역이나, 한강변과 청계천변 지역에서의 콜레라

85) 『漢城日報』 07월 25일자 「伏中에虎烈[*列]刺는蠢動: 별서死亡四千六百餘.

86) 『漢城日報』 1946년 07월 08일자 「虎疫, 都心에蔓延: 攝生에要注意; 『東亞日報』 1946년 07월 08일자 「中華料理店에 虎疫患者; 『中外新報』 1946년 07월 08일자 「明治町慶增樓에 類似患者가發生;. 물론 7월 이전에도 서울 도심지에서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해서 생긴 해프닝(happening)이 있긴 했다. 즉, 6월 6일 밤, “미군여자”에게 콜레라가 발병해 서울 시민들이 “불안”하게 되었지만, 그녀에게 발병한 것은 콜레라가 아니라 페스트였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된다.

87) 『自由新聞』 1946년 07월 19일자 「嘉會町에虎疫.

88) 『東亞日報』 1946년 07월 27일자 「市内호열자: 患者九十一名中 死亡者는八十名; 『現代日報』 1946년 07월 27일 「虎疫一萬台에肉迫: 서울의患者數는九六名; 『獨立新報』 1946년 08월 22일자 「虎疫都心地에蔓延: 死亡者總數六千四百名;. 그런데, 동일한 발간 일자의 『東亞日報』과 『現代日報』 기사가,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환자 수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의 2개 기사 중 하나, 또는 둘 다 오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환자나 사망자 추계법이 관련 기관들 사이에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동일한 소스(source)에 의거해 작성된 기사라 하더라도, 동일 사안에 대해서 상충되는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발병 사실이 전해지고 있었다.⁸⁹⁾

청계천 천변 및 인근 지역에서의 발병 소식은 8월 중순 무렵에도 이어진다. 콜레라는 8월 초순 서울에서 “한동안 고개를 숙으”렸다.⁹⁰⁾ 그러나 그달 12일 성동구 신당동 217 번지에서 “한꺼번에九名”에게 콜레라가 발병했다. 즉, “호열자균이 淸溪川까지 퍼진것을 몰고 그곳주부들이 세탁을하고 아해들은 미역을 감다가한꺼번에 아래우집 식구가전염”되면서 “동번지[(同番地) 내]에서 “아홉명의 호열자 환자가” 발병하였다.⁹¹⁾ 그리고 다시 그곳을 중심으로 “부내[(府內)]의호열자는 점점퍼”져 13일 10명, 14일 5명 등 “전례업시 맹렬한속도로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그것 역시 “淸溪川물에세탁등을하고 아해들은 미역을 감는 까달[*까닭]”에 발생한 것이었다.⁹²⁾ 이들 사례는 8월 중순에 콜레라가 청계천 천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콜레라 감염이 상수도 시설과, 아동 놀이 또는 여가 시설의 미비로 인한 천변 세탁과 아동의 미역 감기 등의 결과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콜레라 발병은 도시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이나 위락 시설 구비 여부, 또 도시 빈민 지역의 여름철 생활·여가 문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8월 중순 청계천 천변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발병한 콜레라는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도(圖)에 변화를 낳는다. 8월 21일자 『自由新聞』 기사는 콜레라가 “경성부내각처[(各處)]에 맹렬한기세로 퍼”져 “신환자가각처에서발생”했음을 보여주면서, 특히 당시 “서울의한복판”으로 오늘날 을지로인 황금정의 한 여관에서 “신환자가 발생”했음을 알려준다.⁹³⁾ 이처럼

89) 『漢城日報』 1946년 07월 26일자 「虎列刺死亡率高調: 서울市内新患者二名發生即日死亡; 힘쓰자!防疫은우리의힘」.

90) 『自由新聞』 1946년 08월 21일자 「서울만百餘名: 虎疫의恐怖繼續」.

91) 「新堂町에 虎疫」.

92) 『自由新聞』 1946년 08월 17일자 「新堂町에卅[*三十]名: 虎列刺急速度로蔓延」.

93) 「서울만百餘名」.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기사는 당시 도심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중구 등에서도 콜레라가 발병하였음을 독자들에게 전한다. 그렇지만 그 자료는 동시에 “新堂町을 위시하여 현저 아현정등지에서 百여명의 새환자를 내었다”고 하는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콜레라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옥천 발원지 현저정과 아현정은 서대문구 지역이고, 더군다나 자료에서 신규 환자 발생 지역들을 선도하는 성동구 신당정 역시 청계천 인근 지역이었다.⁹⁴⁾ 이처럼 8월에 들어서서 서울 도심에서도 콜레라가 발병하였지만, 주로는 한강과 청계천 연안 내지는 그 인접 지역에서 환자들이 발생하면서, 도심 외곽이나 시 외곽 지역은 계속해서 서울 지역에서 발병 중심지로 존재했었다.

8월에도 서울 외곽 지역이 콜레라 발병 중심지였음은 그 당시 구별(區別) 발병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앞의 『自由新聞』 8월 21일자 기사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즉,

【표 3】 8월 19일 현재 경성부(京城府) 구별(區別) 콜레라 발병 상황

	중	종로	동대문	서대문	성동	용산	마포	영등포
환자	11	8	6	24	33	4	28	6
사망자	1	4	3	9	7	1	12	1

출전: 『自由新聞』 1946년 08월 21일자 「서울만百餘名: 虎疫의恐怖繼續」

이 표는 당시 도심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중구와 종로구 지역의 콜레라 발병 사례를 보여준다. 이 점에서 서울 도심 지역에서도 콜레라 환자 발생이 확인된다. 하지만 그 비중은 전체 환자 110명 중의 19명, 그리고 총 사망자 38명 중 5명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8월에는 전에 비해 상대적

94) 식민지 시기였던 1943년 구(區)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신당정은 성동구에 속했고, 해방 후인 1946년 10월 신당동으로 개칭되었다가 1975년 10월에는 소속구가 중구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72XXXXXX3743> (검색일: 2020.11.12.)

으로 많은 환자가 서울 도심지에서 나타났지만, 도심지 발병 사례가 압도적이거나 주요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발병·사망 규모의 측면에서 당시 서울 도심 외곽 지역, 내지는 그 주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마포구와 서대문구, 용산구 지역은 계속해서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의 중심지였다.

그런데 8월 중순의 경성부 구별 콜레라 발병 상황은 서울에서의 주요 발병지의 변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7월 상순까지 서울의 병원지는 “서울의浦口”로서 ‘7일 현재 총 11명에게 콜레라가 발병’하면서 “서울 시내 호열자환자총수의三分지一을 점”하였던 마포구였다.⁹⁵⁾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7월 초 전후에 새롭게 청계천에 바로 접해 있거나 그것에 인접한 성동구 지역들에서 콜레라가 발병하였다. 성동구 지역에서 발병 상황이 누적되면서, 앞의 표에서처럼, 8월 중순에는 마포구를 대신해 성동구가 서울 지역에서 제일의 콜레라 발병 규모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7월 초 이후 행정적으로 성동구에 속한 청계천 천변 지역에서 콜레라 발병이 강세를 보이면서, 8월에는 서울 지역의 중심 발병지가 변화하였다. (물론, 상대적인 발병 규모의 ‘순위’ 변화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지역은 심지어 9월 중순에 그 지역의 일(一) 지역이었던 공덕정의 마포형무소 죄수들에게 콜레라가 발병할 정도로 계속해서 서울 지역의 주요 콜레라 지역으로 존재했다.⁹⁶⁾)

서울의 지역적 콜레라 발병 경향은 9월에도 계속되었다. ‘9월 가을 찬바람이 불면서 콜레라의 위세가 꺾이자’, 군정청 공보부의 통계에 따르면, 9월 5일 현재 서울 지역 누계 환자가 151명으로 그중 52명이 사망하

95) 『東亞日報』 1946년 07월 11일자 「서울의浦口“麻浦”: 奸商輩一掃에水産分場을設置; 「遮斷地에食糧도안주고 罹病者를그대로放置」.

96) 『自由新聞』 1946년 09월 17일자 「麻浦刑務所罪囚 虎疫에二名死亡」. 덧붙이면 형무소 노역에 종사하던 “罪囚” 2명이, 앞의 기사에 따르면, “桃花町[현재의 도화동] 배추밭을 가꾸다가 호열자균을가진 糞便에서 전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기는 했어도, “[새로운]환자보고가一名도없”었다.97) 그런데 “환절기를 마치”하여 “고비를 넘은 듯한”, 심지어 “전멸상태”에 있던 콜레라 전염병이 11일에 “충남 공주에 여행을 갔다 돌아오자 곧 발병”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날과 다음날 중구 봉래정과 중립정에서 콜레라가 18명에게 발병해, 4명이 사망하였다. “주민들을놀래게하”였던 9월 중순 초 발병에서 봉래정은 앞에서 본 적이 있는 지역인 반면에 중립정은 그렇지 않은 지역이다.98) 하지만 경성역 뒤편의 중립정 역시 그 역을 사이에 두고 봉래정과 앞뒤를 이루면서, 용산구와 이어져 있던 지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립정이 봉래정과 마찬가지로 행정적으로 중구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심지는 아니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 도심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콜레라는 9월에도 주로 서울 도심의 주변 지역에서 발병하였다.

이와 같은 발병 경향은 이어지는 10월에도 마찬가지였다. 즉, “서울에서 콜레라[가] 거의 근절”되어 “遂[드디어]終熄”될 것이라 예상되던 10월에도 시 외곽 지역에서 콜레라는 계속해 발병하였다.99) 그렇지만 “날이 차거워지면서” 외곽 지역에서도 콜레라 발병이 종식됨에 따라, 10월 말 이후, 경북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에서도 콜레라는 ‘완전 근멸(根滅)되어 퇴치’되었다.100) 이와 같은 1946년 콜레라 발병사를 가진 서울 지역은 “5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환자총수 2백 58명에서 87명의 사망자”라는 발병 규모를 기록하게 되었다.101)

97) 『朝鮮日報』 1946년 09월 10일자 「秋涼과함께虎疫萎縮: 慶北外엔南朝鮮서完全退治」; 『獨立新報』 1946년 9월 10일자 「서울의虎疫根絶: 全國의으로도漸減傾向」; 『自由新聞』 1946년 09월 11일자 「서울의虎疫激減: 全國의이던威勢減退」.

98) 『朝鮮日報』 1946년 09월 14일자 「虎疫·서울을連襲: 十一日에十八名이發生」; 『中外新報』 1946년 09월 14일자 「虎疫市内에또發生: 中林 蓬萊兩町에十八名!」; 『漢城日報』 1946년 09월 14일자 「虎疫新患十八名: 醫師의隱蔽로蓬萊町에蔓延」.

99) 「虎疫은遂終熄」.

100) 「秋涼과함께虎疫萎縮」; 『朝鮮日報』 1946년 10월 05일자 「虎疫·六道서完全根滅」; 『朝鮮日報』 1946년 11월 01일자 「虎疫·八道서退治」.

서울 지역의 콜레라 발병세는 발병 규모나 치명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세(弱勢)의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콜레라가 남한 지역에서 ‘근멸’ 되었다고 생각되었던 10월의 28일 현재 다음의 남한 지역 도별(道別) 발병자 및 사망자 통계는 주목된다. 즉,¹⁰²⁾

【표 4】 10월 28일 현재 도별(道別) 환자·사망자 누계 및 발병률·치명률

시·도	경북	경남	전북	충남	경기도	전남	제주도	강원	충북	서울	합계
인구	3,178,750	3,185,832	2,016,428	1,909,405	2,486,369	2,944,842	276,148	1,116,836	1,112,894	1,141,766	19,369,270
환자	5,153	3,060	2,432	1,438	1,232	777	741	354	296	258	15,451
발병률	0.16	0.10	0.12	0.08	0.05	0.03	0.27	0.032	0.027	0.022	0.08*
사망자	4,173	1,535	1,640	651	775	442	390	187	143	87	10,019
치명률	81.0	50.2	67.4	45.3	63.0	56.9	52.6	52.9	48.3	33.7	55.1*

1. 출처: 『自由新聞』 1946년 11월 1일자 「虎疫死亡者累計萬名」; 조선상공회의소, 1949, 『朝鮮經濟統計要覽』, 여강출판사 복각판(1986)
2. 발병률·율 및 그것의 평균: 필자 작성(단위, 백분율)
3. *: 발병률·치명률 평균

여기에서 우리는 10월 28일 현재 서울 지역의 발병 규모가 10개 시·도 중에서 ‘꼴찌’였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또는 “어테보다도 적”었음을 알 수 있다.¹⁰³⁾ 특히 인구 114만 명을 가진 서울 지역의 환자 규모는 당시 서울과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가진 충북의 환자 규모에 비해 근소하게나마 작았으나, 사망자 규모에서는 충북의 그것이 서울의 그것보다 1.6배에 달하였다. 사망자 규모에 있어 충북과 서울 지역의 비교는 다시 서울의 치명률이 충북의 것보다 낮음을 암시하고, 실제로 앞의 표에서처럼 그러하였다. 서울 지역의 치명률은 당시 시·도 단위 치명률 평균

101) 『서울신문』 1946년 10월 20일자 「서울에서 콜레라 거의 근절」.

102) 『自由新聞』 1946년 11월 01일자 「虎疫死亡者累計萬名」.

103) 「虎疫은遂終熄」.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55.1%보다 현저하게 낮은 33.7%였다. 이처럼, 서울 지역의 콜레라 발병자는 생존 가능성이 다른 지역의 환자보다 높았다. 작은 발병 규모와 낮은 치명률, 역으로 높은 생존율, 바로 이것이 1946년 콜레라 사태가 전개되는 동안의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의 상대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맺음말: 콜레라 사태의 사회·역사적 사건성(性)

지금까지 우리는 1946년 5월 말 서울 지역에서 발병해 그해 가을에 소멸되는 콜레라의 지역 내 확산과 만연 과정과 그 모습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먼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으로 서울 지역의 발병 특성을 낳은 사회·정치적 맥락을 검토하고, 끝으로 서울 지역 콜레라 사태의 사건성(性)을 살펴보도록 한다.

5월 초순 부산에서 콜레라가 발병한 이후 서울 방어 목적으로 시행된 방역 조치는 콜레라의 서울 발병을 늦추었다. 이를 배경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늦게 5월 말 서울에서 콜레라가 발병하였다. 뒤늦게 발병한 콜레라는 6월 들어 서울 지역민들 사이에서 퍼져 나갔다. 콜레라 발병·확산 초기, 서울 외곽 지역, 그중에서도 한강에 연해 있거나 그것에 가까운 지역에서 적지 않은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인천과 그 인근해 지역과 연결되는 한강의 연안 지역이 당시 서울 지역에서 ‘병원지’(病源地)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강에 연해 있던 마포 지역은 그것의 자연 지리적 위치와 함께 종전/해방 직후 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의 국제정치와 일국 정치의 상황을 표현하면서 당시 병원지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러한 속에서 6월 들어 한강 강변 등의 시 외곽 지역에서 지역 감염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중·하순의 대홍수는 당시 호우가 있었던 지역을 콜레라 집중 발병지로 만들면서 서울 지역 전체의 발병 상황을 일층 악화시켰다. 그런데 콜레라 만연이 단순히 대홍수의 영향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상수도라는 도시 기반 시설 빈약이라는 문제와 연결된 것이기도 했다. 이를 배경으로, 7월 초 전후부터 콜레라 집중 발병지의 변화가 있었다. 즉, 도시 기반 시설이나 위락 시설 구비 여부, 또 도시 빈민 지역의 여름철 생활·여가 문화와 긴밀히 연결되면서 도심지 주변 지역, 그중에도 청계천 천변 지역이나 그것에 가까운 지역이 콜레라 집중 발병지로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이후 10월까지도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렇지만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상(相)은 상대적으로 작은 발병 규모나 낮은 치명률, 역으로 높은 생존율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소규모 발병과 저치명률/고생존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물론, 그것은, 쉽게 예상될 수 있고 당시에도 인정되고 있었듯이, 여타 남한 지역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였던 서울 지역의 보건·의료 자원에 있었다. 즉, 소규모 발병과 저치명률은 “의료시설”이 “충분”해 “다른곳의추종을허락치안는곳”에 그 “원인”이 있었다.¹⁰⁴⁾ 이와 함께 소규모 발병과 저치명률의 원인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잘 갖추진 도시 기반 시설, 그리고 풍부한 위생·방역 시설과 인력 및 체계화된 관련 조직’ 등이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에 의해서만 서울 지역 발병상의 특성이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서울 지역 발병세의 특징은 기반 시설과 인력의 신속한 동원과 체계화, 그리고 방역 조치의 신속한 실시 등으로 말미암은 것이기도 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콜레라가 서울 지역에서 발병하기 이전인 5월 중·하순에 이미 미군정 보건 당국은 방역 시설과 인력을 신속하게 동원하고 그것을 체계화하고 또 방역 조치를 계획하였다. 그리고 5월 말 콜레라가 발생하

104) 「虎疫은遂終熄」.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자 실제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다. 즉,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호열자방역 본부를 설치하고 관계XX[역량? 인력?]을 총동원하여 물샐틈없는방역진”을 구축하고, 6월 1일부터 8일까지 주요 역과 버스정류장 8개소에 검역소를 설치하고 검역과 예방 주사 시술 작업 등의 방역 활동을 전개하였다.¹⁰⁵⁾ 나아가 경찰은 그달에 “警察官을總動員하여 各戶에臨하여 檢病戶口調査를實施하는—便 新患者發生時에는 該家에警察官을配置하여 交通遮斷을 斷行”하였다.¹⁰⁶⁾ 이처럼 경기도와 서울시, 또 경기도 경찰부 등 관계 당국은 서울 전주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방역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비(非)서울 지역으로부터 전염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 또한 실시되었다. 5월 하순 인천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그달 말에는 “무서운 호열자(虎列刺)가서울에 침범”하고, 더군다나 6월 초순에는 서울 중심지에서 “미군여자”에게 콜레라가 발병했다는 해프닝(happening)까지 있었다. 즉, 6월 6일 밤, “서울의한복판”인 황금정-오늘 날의 을지로-에 있는 “경전(京電) 미군인 합숙소”에서, 게다가 “위생관념과 방역에 철저한 미군인”에게 콜레라가 발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렇지만 그것은 “엄밀한검병〔檢病〕” 끝에 그 “미군여자”에게 발병한 것은 콜레라가 아니라 페스트(pest)였다고 하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시 콜레라 발병에 대해] 태평한태도를 가지고잇든 一백二십 만시민”을 “불안”케 하고, 나아가 “크다란공포를느끼게하”였다.¹⁰⁷⁾

5월 말 콜레라의 서울 발병을 전후로 한 상황은 콜레라 감염으로부터 서울을 지키고자 하는 군정 당국의 노력을 촉진하였다. 즉 6월 상순에 서

105) 『서울신문』 1946년 06월 02일자 「8個處의檢疫所: 市內에設置코防疫活動」.

106) 수도권구경찰청, 1947, 『解放以後 首都警察發達史』, 수도권구경찰청, 163쪽.

107) 『서울신문』 1946년 06월 08일자 「막자-一致協力으로虎列刺의病魔: 드디어都心地侵入; 京電宿泊美軍人罹病附近交通遮斷」; 『東亞日報』 1946년 06월 08일자 「虎疫 또發生?: 京電附近交通遮斷」; 『서울신문』 1946년 06월 09일자 「美兵의罹患者: 嚴密히檢病中」; 「咫尺京城에虎疫蔓延」.

울시 보건 당국은,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인천 왕복자들이나 인천 거주자에게 “특히주의하여 하나도빠짐없이” 예방 주사를 맞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무서운 병균을 방지하기위하여” “세부란스전문학생二十여명”을 3교대로 편성해 24시간 계속해서 경성역에서 “오르고 나리는여객하로에 만명서 一만五천명의 예방주사”를 처치(處置)토록 하였다.¹⁰⁸⁾ 이것은, 인천 왕복자나 거주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것에서 보듯, ‘지척인 인천’에서의 콜레라 발병이 서울 지역민과 서울 소재의 통치 당국(자)-미군을 포함해서-에게 야기한 긴장과 “커다란공포”를 보여주는 한편 그러한 상황에서 서울의 철도 관문인 경성역에서 ‘무서운 콜레라 병균’으로부터 서울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속에서 ‘6월 말까지 서울 지역에서는 인구 114만여 명 중 1백만 명’에 대해서 예방 접종이 이루어졌다.¹⁰⁹⁾

철도 교통 여객과 철도 교통 시설뿐만 아니라 수상 교통로인 한강에 대해서도 서울 방어 노력은 이루어졌다. 한강과 그 연안 지역이 병원지로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초기 노력은 서울 지역의 한강 유역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경기도를 담당하고 있는 제1관구 경찰청은 6월 중순에 ‘한강에서의 채소 세탁과 수영을 엄금’하였고, 동빙고정이나 청엽정 등의 “소관[所管]용산서(龍山署)”는 앞의 엄금 정책을 “업자에게 통달[通達]하는동시에 감시계원을 배치”하였다.¹¹⁰⁾ 그렇지만 7월에 들어서 그 대상 지역·물자는 확대된다. 즉 7월 초순에 “漢江沿岸의防여[*疫]을徹底하기爲하여 入船々[*船]客에對해서는檢역[*疫]을實施”하였고, 또 마포에는 도(道)위생과검역본부출장소라는 이름으로 검역소가 설치되어

108) 「咫尺京城에虎疫蔓延」.

109) GHQ, USAFPAC, *Summation* No 9(1946.06.), p. 71.

110) 「강물은危險」; 『서울신문』 1946년 06월 18일자 「漢江서水泳禁止: 江沿邊의虎疫發生으로」.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마포항에]上陸하는生鮮은 一切檢査하여 [콜레라군]附着의危險性이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실행하는 등 해산·수산물에 대해서도 검역 조치를 실행하였다.¹¹¹⁾ 나아가 경기 지역의 주요 발병지인 인천과 서해 연안 지역이 서울로 연결되는 통로인 한강의 서해 초입(初入)에 대해서부터 한강 방어 노력이 이루어진다. 즉, 7월 6일 경기도 후생부는 주요 해상 교통 차단 대상 지역으로 ‘강화도와 김포군 및 그 주변 지역’과 함께 “江華島와 金浦郡사이의해[*海]峽”을 제시하고, 그 해협의 교통을 차단하였다. 이처럼, 미군정 당국은 서해와 한강이 만나는, 다시 말해서 한강 입구의 해상·수상 교통까지 방역 목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통해 한강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콜레라균을 방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서울 방어 노력은 ‘비(非)서울 사람들’의 서울 여행을 차단하는 조치로까지 이어진다. 6월 중·하순의 홍수 이후 전국적으로 콜레라 발병세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전라남도 피크(Raymond Peek) 군정관은 7월 16일에 “虎列刺蔓延을防止하기爲하여當分間” “學生을비롯하여一般旅客全部에適用”되는 “서울旅行禁止”를 발표하였다.¹¹²⁾ 여기에서 금지되는 행선지가 서울이었던 것에서 보듯, 금지 조치는 서울 지역으로의 콜레라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책이었다. 이와 같이 미군정 당국은 ‘수부(首府) 서울 방어’라는 관점에서 비(非)서울 지역발(發) 콜레라 감염으로부터 서울을 지키기 위해 경성역에서 전(全)여객 대상의 예방 주사를 처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비서울 주민의 서울 여행을 금지하는 등의 방역 대책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방역책은, 군정 당국의 체계적인 방역 조직과 각종 방역 대책 실시와 함께, “재빠른방역과 병균의박멸”을 가능

111) 『嶺南日報』 1946년 07월 06일자 「勿驚虎疫發生地71個所: 患者總數二千三百名」; 『水産經濟新聞』 1946년 07월 07일자 「生鮮上陸禁止令穩和: 仁川, 麻浦에檢疫所를實施; 生鮮은虎열[列]刺의媒介物이안이다」.

112) 『東光新聞』 1946년 07월 19일자 「서울旅行禁止: 「피-그」軍政官言明」.

하게 하면서 서울 지역에서의 발병 규모를 소규모에 그치게 하였다.¹¹³⁾

하지만 그와 같은 방역 대책은 물론 만인(萬人)을 행복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앞의 서울 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이나 일반인들의 용무조차 제한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非)서울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서울 지역에서의 소규모 발병 규모와 저치명률/고 생존률은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희생자가 비서울 사람만이 아니었다. 서울 주민 또한 희생자였다. 예컨대, 미군정 당국에서는 6월 중·하순에 “요지음 호열자에이병[(霍病)]하는경로를 조사하여보니 대부분이 불결한 노점음식점으로부터 생선같은것을먹는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그날그날의생활을위하여 하고잇”는 “露店을團束”하였다.¹¹⁴⁾ 하지만 “매일 가치” 경찰서 보안계에 “붓들녀와 물건을압수당다고잇는” 노점상인 “대부분이 해외에서 도래온 전제민과 기타세궁민들”로서 “생활고로인하여 먹을것이업는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문 지상에서 “그들에게 적당한직장을주어 생활보장을 시켜주”는 “根本對策[이]必要”하다고 주장할 정도로, 노점 단속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¹¹⁵⁾ 이처럼 콜레라 방역 대책은 ‘먹고 살 방도가 없는 송환민과 세궁민(細窮民)’을 사경(死境)에 몰아넣었다. 그런데 사경으로 내 몰린 사람이 노점상만이 아니었다. 일반 시민 역시 그러한 처지에 놓였었다.

서울의 일반민들 역시 방역 대책의 하나로 광범위하게 시행된 교통 차단책으로 인해 식량 부족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미군정 실시 이후 식

113) 「虎疫은遂終熄」.

114) 『釜山新聞』 1946년 06월 19일자 「病菌溫床露店을團束: 十五區署서嚴重處罰한다警告」. 노점상 음식 취식으로 인한 콜레라 발병 사례는 5월 20일 부산 초량정에서 확인되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自由新聞』 1946년 05월 29일자 「戰慄할虎疫禍漸次擴大: 釜山九十二名發生全市遮斷準備」; 『서울신문』 1946년 05월 30일자 「患者百三十五名: 釜山에必死의防疫活動」 참고.

115) 『自由新聞』 1946년 06월 20일자 「어피로가나露店商人: 取締도不得已나根本對策必要」.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량 정책 실패로 인해 특히 도시민들은 1946년 들어 심각한 식량 부족 문제에 고통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5월 말 대구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전라도로 “쌀동냥”을 다닐 정도로, 도시민들은 ‘전라도쌀’의 “搬入” 등을 통해 식량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고 있었다.¹¹⁶⁾ 이에 군정청 운수부에서도 5월 초 서울 사람들의 호남미(湖南米) 반입 노력에 “便宜”를 제공하고자 ‘경성역과 목포 간의 호남선 직통 열차를 증편’할 정도로 전라도 지역에서의 미곡구입과 그것의 서울 반입은 도시민들에게 있어 ‘사활적인’ 것이었다.¹¹⁷⁾ 이런 상황에서 콜레라가 전라도 지역에서 확산되자, 미군정 당국은 5월 말과 6월에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호남선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의 휴지(休止)와, 기차표 발매 중단 등을 통해 서울 지역민 등 ‘외지인’의 전라도 여행을 가능하지 않게 했는데, 이것은 도시민들의 양도(糧道)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다.¹¹⁸⁾

더욱이, 6월 중·하순의 홍수는 서울 지역민들의 식량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즉 당시 “四十년래히유[*희유(希有)의] 폭우로 말미아마 [철도] 교통이 두절’되고 또한 “각지의 호열자발생으로 당국에서는 도외(道外) 여행을 극력제한”해 “식량문제에 있어서의 서울은거의고립상태”이어서, 7월 중순에 식량 문제는 서울 시민이 “도저히견디지못할 지경”이었다.¹¹⁹⁾ ‘수해로 인한 교통 두절과 콜레라 방역책의 하나였던 교통 차단으로 인한

116) 『大邱時報』 1946년 06월 04일자 「全羅道서四千石確保: 『쌀동냥』간農商部長과一行歸邱」.

117) 『朝鮮日報』 1946년 05월 05일자 「쌀搬入便宜圖謀에 湖南線增發每週土曜運行」. 당시 전라도쌀 구입과 반입이 서울 지역민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비(非)전라도 사람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사활적인 모험’이었는데, 이것은 경남 안의(安義)의 한 가장이 “全羅道에서쌀을가지고오든途中列車속”에서 콜레라가 발병해 대구에서 사망하는 사례에서 극적으로 확인된다(『嶺南日報』 1946년 06월 13일자 「虎列刺威勢 더욱猛烈: 大邱各地에四名死亡; 道內各地에患者續々[*續]發生」).

118) 『朝鮮日報』 1946년 06월 11일자 「羅州陰城車票發賣中止: 防疫關係로當分間施行」.

119) 『東亞日報』 1946년 07월 13일자 「交通遮斷과食糧에우는市民들」.

극심해진 식량 문제'는 8월에도 계속되었다. 8월 초 『朝鮮日報』는 “수해와 호열자만연관계로 서울과 지방사이에 교통이 원활치못하게 되자 한흙배급쌀이나마 고루 돌지못하게된틈을타서 쌀값은어느사이에 五백원대를 부르게되어 어데를가나 『이래서는못살겠다』는소리로 꺾찻”다고 전한다.¹²⁰⁾ “어데를가나” “못살겠다”는 위기 상황이 콜레라 발병으로 봉쇄된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하였다. 예컨대 “서울시내 호열자환자총수의 三분지一을 점”할 정도였던 마포 지역의 경우, “호열자환자가 발생한집근처는 교통차단을하고 잇슴으로 환자아닌사람들이 식량이 업서서 기아[*기아(饑餓)]상태에 빠져 잇”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아즉이에아무런 조치”도, 또 “아모런指示도對策도없”었다.¹²¹⁾

이러한 상황에서 기아 상태의 고통은 특히 빈한(貧寒)한 도심 주변이나 시 외곽의 거주민들에게 심각하였다. 서울의 주요 콜레라 발병지는, 앞에서 보았듯이, 한강변이나 청계천변 등 서울의 빈한한 주변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대구나 부산 등 여타 지역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콜레라 발병이라는 ‘생사의 문제’ 외에도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교통 차단 등 봉쇄 조치로 말미암은 기아라는 또 다른 ‘사생(死

120) 『朝鮮日報』 1946년 08월 04일자 「“闇”의米價粉碎에 日·每人二合配給: 十六日부터 實施決定」.

121) 「遮斷地에食糧도안주고 罹病者를그대로放置」; 『現代新聞』 1946년 07월 06일자 「麻浦區에虎疫蔓延!: 至急防疫對策要望」. 덧붙이면, 앞의 기사 중 ‘당국의 무대책’을 비판하는 기사 내용은 “上記三紙[『現代新聞』, 『自由新聞』, 『朝鮮人民報』]가九日附로 麻浦區孔德町內에서發生한 虎疫문제에X[*관독 불능]하여 虛위[*偽] 보도를하였다고하여 傭傭市場이 告訴”해 7월 9일 “突然新聞界에檢學旋風이불어” 자유신문사 사장, 조선인민보사 사장과 발행인, 대한독립신문사 편집국장 등이 미군에 의해 “被檢”되는 ‘사건’을 낳았다(『現代新聞』 1946년 07월 10일자 「新聞界에黑旋風: 自由·人民·大韓等幹部被檢; 理由는虎疫記事關係」). 이는 당시 콜레라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콜레라 발병과 다수의 사망’은 미군의 통치성(governmentality)을 위기에 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군의 군사적인 남한 점령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휴머니즘을 부인하는, 그리하여 미군의 지배와 통치에 정당성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임종명, 2020, 앞 논문.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의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이처럼, 서울 지역에서 소규모 발병과 고(高)생존율은, 역설적으로, 서울 주민, 특히 송환민이나 세공민, 그리고 빈민 지역민들의 희생 위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이 점에서 그들의 희생이 서울 지역 발병의 상대적 특성을 가능하게 하였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서울 지역에서 만연한 콜레라에 대한 방역 대책의의, 또 이것이 낳은 소규모 발병 규모와 낮은 치명률이라는 서울 지역 발병세의 사회·정치적 함의였다.

그런데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의 함의가 주변인들의 희생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었다. 서울 지역의 콜레라 발병세는, 앞에서 보았듯이, 한강 연안 지역이라는 자연지리적 위치나 대홍수라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자연적 요소가 콜레라 만연으로 현상화되는 데에는 상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이나 위락 시설의 불비(不備), 또 도시 빈민 지역의 여름철 생활·여가 문화라는 요소가 작용하였다. 이 점에서, 콜레라 발생과 만연은 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기도 했다. 나아가 우리는 앞에서 한강에 연해 있던 마포가 자연 지리적 위치와 함께 종전/해방 직후 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의 국제정치와 일국 정치의 상황을 표현하면서 당시 병원지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보았다. 이는 콜레라 만연의 중심에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종식 이후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제국의 시대가 종식되고 근대 민족 국가(ethnic nation-state)의 시대가 시작되는 과정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서울의 콜레라 발병세와 발병상은 일국적, 지역적 수준에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 또한 표현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에서 중심부는 1946년 9월 '수부(首府)'에서 '특별시로 신(新)발족'했던 서울이었고, 비서울 지역은 일국적, 내지 전국적 수준에서 주변부였다.¹²²⁾ 서울 지역 내

122) 「虎列刺防疫에必死의: 緊急會議열고對策講究」; 『東亞日報』1946년 09월 21일자

방역 대책은 물론이고 비서울 지역의 방역 대책 역시, 단적으로 서울 여행 금지 조치에서 보이듯, ‘수부 방어’라는 관점에서 실행된, 서울 중심의 방역 조치였다. 서울 중심의 방역 대책은 그 지역의 콜레라 발병 시기를 여타 도(道) 단위 지역의 그것보다 늦추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콜레라의 상대적 약세(弱勢)를 낳았다. 이처럼 중심부-주변부의 관계는 1946년 서울과 전국의 콜레라 발병상과 발병세에서 표현되었다.

전국적 수준에서 표현된 중심부-주변부 관계는 서울 내부에서도 목격된다. 1946년 서울에서 콜레라가 발병한 이래 늦게까지 시내 주요 콜레라 병원지로 기능하면서 주요 발병지로 자리 잡은 지역은 마포와 용산 등 한강 연안과 신당정과 현저정 등 청계천, 옥천의 천변 지역 등 도심지 외곽이나 시 외곽 지역의 주변부 지역이었다. 주변부 지역의 발병상은 그 지역들이 자연 지리적으로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 전염에 노출되기 쉬운 강변이나 천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의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강변이나 천변 지역이라는 자연 지리적 입지가 콜레라 만연으로 결과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그 지역의 빈약한 도시 기반 시설 등의 문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마포와 영등포 지역이다. 두 지역 모두 식민지 시기였던 1936년 부역(府域) 확대 조치로 경기도에서 경성부로 편입되어 1943년 구제(區制) 실시 이후 구(區)로 편성되어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경계를 이루는 변경 지역이다.¹²³⁾ 새로이 부내(府內)로 편입된 두 지역이 경성부 상수도 체계에 있어서도 ‘말단(末端) 급수지역’에 위치하면서, 수도물의 안정적인 공급은 그 지역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였다. 바로 이러한 일상적 문제 상황에서, 홍수 이후 마포 지역에 더하여 영등포 지

「서울特別市로 新發足: 府廳은 서울市廳으로」.

123)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6988>;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7013>. (검색일: 2020.12.28.)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역에서 콜레라가 집중적으로 발병하였다.¹²⁴⁾ 이점에 유의할 때, 우리는 중심부 서울 내부의 중심부와 주변부 관계, 나아가 새로이 경성부로 편입·편성된 변경의 존재가 발병세의 지역적 차이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서울의 콜레라 발병상과 발병세에는 당대의 전국적, 지역적 차원의 ‘중심부/주변부’ 관계와 변경의 문제가 표현되고 있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1946년 서울 지역의 콜레라 발병·확산 양상과 발병세가 근대에 형성되어 가동되고 있던 전국적·지역적 차원의 중심부/주변부 관계에 지역 내 변경의 문제가 더해지면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¹²⁵⁾

124) 「水禍뒤에給水難」.

125) 전국적 차원에서 중심부/주변부 문제에 변경의 그것이 중첩되어 악성(惡性) 콜레라가 만연했던 사례는 식민지 시기 황해도 소속 군부(郡部) 지역이었다가 해방 후 경기도 소속 군(郡)으로 편성되면서 38선 접경 지역으로 변화된 연백과 용진 및 그 소속 도서에서 목격된다. 그 지역은 7월 이후 인천 지역을 대신해 경기 지역 내 주요 발병지가 되는데, 그 지역의 콜레라 발병세와 그것의 정치적 함의에 관해서는 임종명, 2020, 앞 논문 참고.

참고문헌

1. 사료

General Headquarters, US Armed Forces, Pacific, Summation of U.S.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미군정활동보고서』, 원주문화사 영인본.
US Armed Forces in Korea(USAFIK), X X 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1948, “Repatriation of Japanese Civilians and Other Foreign Nationals,” History of US Armed Forces in Korea PART I (복각판).

USAFIK, X X 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1947, “The Cholera Epidemic of 1946.”

General Headquarters/Supreme Commander for Allied Powers G-III, 1947, “Report on Mass Repatriation in the Western Pacific.”

『光州民報』, 『大邱時報』, 『大東新聞』, 『大衆日報』, 『大韓獨立新聞』, 『獨立新報』, 『東光新聞』, 『東亞日報』, 『서울신문』, 『水産經濟新聞』, 『嶺南日報』, 『自由新聞』, 『朝鮮日報』, 『中央新聞』, 『中外新聞』, 『漢城日報』, 『現代新聞』

경상북도 통계 포털(https://www.gb.go.kr/open_content/stat/index.jsp)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http://archive.history.go.kr>)

다음 백과(<https://100.daum.net/>)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일본 국회 도서관 디지털 컬렉션(<https://dl.ndl.go.jp>)

조선상공회의소, 1949, 『朝鮮經濟統計要覽』, 여강출판사 복각판(1986).

수도관구경찰청, 1947, 『解放以後 首都警察發達史』, 수도관구경찰청.

1946년 서울 지역 콜레라 발병세와 일국적·지역적 중심부/주변부/변경성(性)

2. 논저

- 김백영, 2009, 『지배와 공간: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 김영근, 2003, 「일제하 경성 지역의 사회·공간구조의 변화와 도시경험: 중심-주변의 지역분화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20.
- 김상숙, 2016, 『10월항쟁: 1946년 10월 대구 봉인된 시간 속으로』, 돌베개.
- 김진혁, 2014, 「북한의 위생방역제도 구축과 인민의식의 형성의 형성(1946~1950)」, 『한국사연구』167.
- 김춘선, 2007, 「중국 연변지역 전염병 확산과 한인의 미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43.
- 신좌섭, 2000, 「군정기의 보건의료정책」, 『醫史學』9(2).
- 여인석, 2018(2019), 「미군정기와 정부수립기: 1945~1949」, 대한감염학회, 『한국전염병사』Ⅱ, 군자출판사.
- 이연식, 2018, 「해방직후 조선인 귀환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한일민족문제연구』6집; 2018, 「해방 직후 남한 귀환자의 해외 재이주 현상에 관한 연구—만주 ‘재이민’과 일본 ‘재밀항’ 실태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1946~1947—」, 『한일민족문제연구』34집.
- 임종명, 2020, 「1946년 경기 지역의 콜레라 사태와 종전/해방 직후 국제·일국·지역 정치」, 『동방학지』193; 2017, 「종전/해방 직후(1945.8~1950.5) 남한 담론 공간과 변경의 미학적 재현」, 『역사연구』33; 2011, 「해방 공간의 소설과 ‘서울/비(非)서울’의 표상 체제」, 임종명 외, 『역사 속의 중앙과 지방』, 엔터.
- 정해구, 1988, 『10월인민항쟁 연구』, 열음사.
- 황선익, 2013, 「동북아정세와 중국지역 한인의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46.
- Kim, Yang Soo, 2019, “Cholera Outbreaks in Korea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Clinical and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Infection & Chemotherapy*51(4).

사학연구 제140호(2020. 12)

- McNeill, William, 1976, *Plagues and Peoples*,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Anchor, 허정 옮김, 1992(1995),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한울.
- Swell Jr., William H., 1996, “Historical Event as Transformations of Structure: Inventing Revolution at Bastille,” *Theory and Society*25(6).
- Henry, Todd A., 2014, *Assimilating Seoul: Japanese Rule and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in Colonial Korea, 1910-1945*,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김백영·정준영·이향아·이연경 옮김, 2020, 『서울, 권력 도시: 일본 식민 지배와 공공 공간의 생활 정치』, 산치럼.

Abstract

The 1946 Spread of Cholera in Seoul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IM, Chong Myong

The cholera broke out in Seoul comparatively belatedly at the end of May, 1946, and then in the following month the epidemic came to be spread to the outskirt of Seoul, especially on the riverfront of the Han River and its vicinities, infecting not a few residents there. The flood late in July exacerbated the outbreak of the epidemic, which came to make continually contagious those people living next to downtown Seoul, especially the inhabitants of the villages along Ch'önggye Stream and the residents in its neighboring ones. In the fall of the year, however, the epidemic came to an end. The seasonal cholera epidemic in metropolitan Seoul showed its outstanding feature, viz. the less infections with lower case fatality rate compared with the epidemic plaguing other provincial localitie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The feature was caused by the local potentials of basic health and social infrastructures enough to cope with the epidemic, and, more significantly, by the contemporary disinfection policy of South Korean authorities which was currently oriented toward the protection of metropolitan Seoul from the infection.

The short history of the cholera epidemic in Seoul was not only bacteriological but also socio-political in post-colonial South Korea. The fact that the waterborne infection of cholera surged in the areas along the Han

River and the Ch'ŏnggye Stream shows the cholera spread in 1946 Seoul was a bacteriological phenomenon. At the same time, the spread was a socio-political one in that the surge of the epidemic was found in the outskirts of Seoul where the urban infrastructures such as water supply and drainage system was poorly established. Moreover, the epidemic spread which began with the infection of some Korean repatriates from China expressed the post-colonial history of the East Asia and Korea which the establishment of the ethnic nation-states system followed the collapse of Japanese empire. Given this, we can say that the cholera outbreaks in 1946 Seoul were socio-political occurrences as well as natural, bacteriological ones.

At the same time, the cholera pandemic in Seoul expressed the simultaneous progress of modern 'metropolis/periphery' relationship at the level of the nation and the locality. The Seoul-oriented disinfection policy for the defense of the capital city delayed the first outbreak of cholera in Seoul, bringing forth its comparatively mild outbreak. Given this, the center of the epidemic in Seoul was the local periphery which was located at riverside and streamside areas equipped with poor urban infrastructures. This shows that the cholera epidemic in 1946 Seoul was the historical event as a modern relationship between metropolis and periphery.

Keywords : 1946 cholera epidemic, Seoul, riverside area, streamside area, metropolis/periphery/border